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李龍洛

편집인 : 金正수

월간 9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1년 12월 28일

送年辭

吳興祚 (재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치대 56년 입)



금년은 엄청난 재난으로 뉴욕 참사와 "테러와의 전쟁"의 와중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불안감에 휘말린 채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잠시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돌아켜 보면 재미 7000 동문간의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창회보가故 김경기 이사장님이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울서 오는 본부 동창회보에 지역소식을 보태어 24면의 초리한 회보였는데, 알찬 내용의 32면의 회보로 발전시킨 것은 오인석 전 회장님과 뉴욕 동문들이 수고한 결실이라 하겠으며, 이를 기초로 켈 이용락 회장님과 시카고 동문들이 보다 내용이 충실한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재정적인 협조입니다.

동창회보 발간, 제작, 인쇄, 발송 및 인건비등 월 약 일만불로 연 12만 불이 소요되는데 동창회재정에 제일 기본이 되는 회보 구독료가 지난 회기에 약 5% 정도만이 납입되는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문 독지가들로 관악 후원회를 만들어 각 지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시작하는 시카고 팀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이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좀더 많은 동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재미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우리 동창회보발행이 자립적인 기반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과제는 회보 발간에 중요 역할을 하는 편집인의 경우, 지역 활성화 경비문제로 회장을 맡는 지부로 옮겨 발행하는 것도 좋으나 유능한 인재

를 2년마다 구하기도 힘들고 각 지부마다 지역의 특성과 책임자들과의 인화관계를 쌓는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fax, e-mail 등 모든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5-6년 발간하는 것이 능률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 동창회가 추진중인 母校와 後進을 위한 100만 불 基金 모금운동은 많은 이해와 협조로 약 46만 불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동창들의 대형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좀더 홍보하고 앞으로의 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것 같으면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 사회 및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곳 이민 사회에서도 동문들이 이민사회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문 모두가 재미 서울대학 총 동창회의 기치아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보다 나은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조연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가모니의 인과경(因果經)에 있는 봉우(朋友)의 세 가지 요소로 잘못이 있으며 서로 타이르고, 경사가 있으면 진정 기뻐하고, 위태롭고 고생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임오 원단(壬午 元旦)을 맞으며 동문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미 총동창회 제 3차 임원회의 개최

유료 구독자수 배가로 회보 자립 추진

재미 총동창회 상임위원회의가 11월 30일(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열려,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제 6대 집행부의 업무진행경과를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락 회장, 송수영 관악후원회부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김현옥 재무국장, 정호 출판국장 및 장기



모교의 校鳥 백학

남 섭외국장이 당연직 구성원으로 전원 참석하였으며, 박영규 감사와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조대현 회장, 김정수 회보편집인이 배석하여 회 사무총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김정주 총무국장은 제 2차 임원회의(9월 7일 6:00-10:00PM 총동창회 사무실) 회의록 낭독하고, 이의없이 통과 시켰다.

회 총장은 회보발간사업의 보고를 통하여 시카고에서 8월 첫 호(90호)를 낸 이후로 11월 초(93호)까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고, 편집 제작시간도 첫 호의 100

시간으로 부터 20여 시간으로 단축되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어 그 발간 비용도 추정 예산의 범위 내로 근접해간다고 하였다.

이후 김현옥 재무국장의 1/4분기의 총동창회의 재무집행경과 보고가 있었다. 김 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회보발간 비용등을 충당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올 회계연도 남은 기간을 위하여서 동문들의 회보 구독료 납입이 배가되어야 전년도 수준이 된다고 하였다.

<2면에 계속>

목차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전희택, 이청광동문 관악후원회 종신 이사로 참여

LA 지역 동창회에 소속한 전희택(의대 60년 졸업, 총동창회 평의원)동문과 이청광(상대 61년 입학, 남가주 동창회장) 동문이 관악후원회 종신 이사로 추대되었다.

관악후원회 종신이사회비는 재미 동창회의 안정적인 발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데 관악후원회 종신 이사회는 \$3,000이다. 이번에 전희택 동문은 일시불로 완납하였고, 이청광 동문은 이번에 \$1,500을 납입하므로 종신이사회비를 완납하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두 동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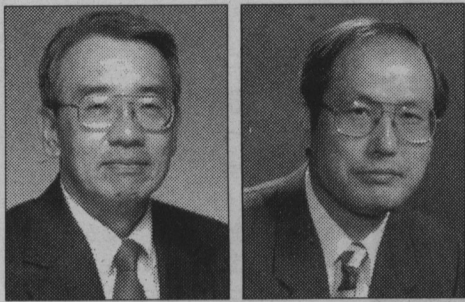
손정하는 서울대학교
신류배 동문 여러분께.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귀동문과 온가족이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용락 드림

2001년 12월 28일



회보 발행의 안정기 반 확보를 위한 관악후원회 종신이사회에 추대된 전희택(좌), 이창광 동문.

<1면에서 계속>

또 올 회계연도 총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관악후원회의 추대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각 지역 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회원 추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송순영 관악후원회장과 참석임원들은 관악후원회원 배가를 위해 노력하며, 각 지역동창회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특 사무총장은 서울의 총동창회로부터 12월 말까지 올 회계연도 재미총동창회 분담금 납부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분담금은 제 10차 평의원의회에서 전년도 분에서 10% 증액된 \$11,000 결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납부를 요청하는 공한을 각 지역동창회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정 출판국장으로부터 지난 평의원의회에서 거론되어 계획된 母校音大 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의 미주 지역동창회 순회공연 사업의 추진 결과 보고가 있었다. 정 국장

은 음대에서는 학부 3,4학년생으로 구성된 10여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보내왔으나, 4학년들의 졸업일정에 따라 내년 2월 전에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원회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참석자들간에 이 음악회 개최에 따른 제반 문제, 공연장 확보와 청중확보 등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준비상태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할 때 2월 전까지 공연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내년 여름방학중의 순회공연 성사를 목표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모교 측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공연 사업에 소요되는 財源 확보의 방안의 일환으로, 모국의 해외동포재단과의 접촉을 통하여 장기남 석외국장과 정호 출판국장이 함께 연구하여 母校와 재미 동문들간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音樂會의 성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용락 회장 뉴욕지역동창회 송년 총회 참석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6개 주의 동문들이 결속하여 모범적인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 Heartland 지역 동창회를 격려한 바 있는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은 지난 12월 22일 열린 뉴욕지구 총동창회(회장 한창섭)의 초청으로 송년 동창회에 참석하였다.

李회장은 180여명의 참석 동문들을 격려하고, 축사에서 재미 총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뉴욕 지역동창회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李회장은 또 29일에 열리는 워싱턴 DC지역 동창회(회장 진금섭)와 내년 1월 26일에 열리는 뉴잉글랜드지역동창회(회장 이재신)에도 양 동창회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우측의 NY연설문 참조)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人氣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에서 지난 8월 개최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던 조수미 동문의 공연 실황녹음 CD가 동문들간에 인기를 얻고 있다.

회보 #93호에 워싱턴 DC지역 동문회에서 재미 총동창회에 기부한 한정판 CD 500매의 판매 기사가 보도된 이후 각 지역의 동문들이 많은 주문을 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시카고 지역동창회 총회 및 연말파티에서 75개

가 즉석에서 판매되었고, 93호 배포 이후 우편 주문을 통하여 꾸준히 팔리고 있다. 버지니아의 한 동문은 Washington DC 공연을 아쉬워하는지 5개를 우편 주문하기도 하였다.

로드아일랜드에서 거주하는 Mrs. 안광원께서는 한 장을 주문하면서 \$100.00을 보내시면서, 1개 가격 \$18.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보발행 후원금으로 기탁할 뜻을 전화 주문시에 밝혔다.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 회장 NY 송년회 인사

<이 회장의 인사말은 현장에서는 축약되었으나 준비된 원고 원문임>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송년모임에 참석하신 동문가족 여러분! 만나뵙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섭 회장님, 김종율차기회장님, 추재옥이사장님, 총동창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뉴욕지구의 평의원이신 윤정옥, 최철용, 김영덕, 최수용, 권대전, 이진구동문 및 각 단과대학의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원여러분, 본인을 뉴욕지역 동창회의 송년모임에 초대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동문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실제적인 수도인 뉴욕은 미주동창회 중에서 많은 동문들이 계시며 동문 여러분들께서 미국사회의 각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동문들을 만날 수 있음을 본인으로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재미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년간 재미 총동창회의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우리동창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큰 업적을 쌓으신 오인석 명예회장님과 총동창회의 임원으로 크게 봉사하신 김기태 관악후원회장, 이재덕, 김용학 사무총장님, 이경림 재무국장님, 출판국장 오성, 총무국장 이홍승, 석외국장으로 수고하셨으며 지금도 총동창회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며 수고하시는 김태곤 동문들께 총동창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유형, 무형의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총동창회의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문들 한사람, 한사람의 기여가 컸음을 생각할 때 우리동문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뉴욕지구 동창회는 이제 비록 재미 총동창회의 본부가 총동창회 발전과 관련된 제반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실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시카고로 옮겨왔으나 본인은 뉴욕지구 동문들과 동창회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뉴욕에서 재미 동창회보의 역동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편집인으로 수고하신 최호동문

과 송의용 선생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은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의 중심이며, 여기에서 우리의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고 계시는 만큼 <모교를 고양하는 재미동창회, 지성인의 우정을 글로서 나누는 동창회보>라는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뉴욕지역 동문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덕중에 한가지는 면전에서 남의 공덕을 거명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재미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와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에 기여하여 주신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의 동문 여러분! 지난 9월 11일에 겪었던 테

러 사건에 제하여 뉴욕지역에 거주하시는 동문 및 친척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는 바로 그 날 모교와 총동창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가는 도중 Alaska주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음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동창회는 회보를 통해서 이미 상상하기 어려운 이 비인간적인 폭력만행에 대해서 우리동문들의 이름으로 규탄했음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재미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들 중에는 인명 피해자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 바 있습니다.

동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간 보여주시 바와 같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큰 역량을 더욱 발휘하셔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을 다함께 기원하며,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문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크게 이루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많은 癌환자들을 뉴욕 지역에서 치료하시다 뉴욕지역의 많은 교민들과 동문들의 정성 어린 성원에도 불구하고 예석하게 別世하신 유희길(공대 68년 졸, PH.D, MD) 동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서 동문여러분들과 유동문을 위하여 묵념을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12/22/01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이용락 (뉴저지 대원각 토요일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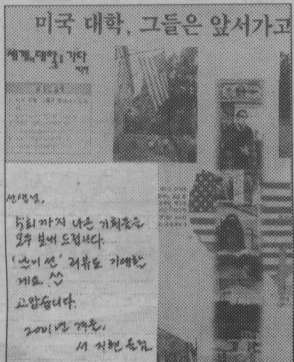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동문은 출퇴근 시간 Lake Shore Drive를 운전하는 동안 조수미양의 탁월한 음악성에 실린 서양과 우리 가곡 19곡을 들으면 마치 Washington DC에 연주회에 직접 참석

하는 기분을 맞는다고 하였다. 총동창회는 Washington DC 지역동창회의 뜻을 기려 300개의 판매대금을 우선적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납입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의 판매대금 \$1,

75을 기금으로 확보하였다. 이 CD를 구입코자 하는 동문은 회보 30면 상단에 있는 주문서에 기재하여 그 대금을 수표로 보내시면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母校 대학신문 기자단 미국 4개 우수대학 취재보고서 보도

재미 중동창회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지원으로 미국의 선진 4개 대학(하버드, MIT, UC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제도를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탐방 취재하고 귀국한 모교의 大學新聞 취재단(학생



측면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모교대학생들의 우수한 활동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지원한 재미동창회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보람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학생기자들이 탐구정신으로 쓴 이 취재단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 "미국대학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가?" (11월 5일),
② "엘리트 교육에 앞장서는 하버드" (11월 12일),
③ "기술과 사회의 중심에 선 MIT" (11월 19일),
④ "산학협동의 산실 스탠포드" (11월 26일) 및
⑤ "버클리 학생답으로 미국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12월 3일)라는 주제로 쓰여졌다.

이들은 짧은 기간중에도 미리 잘 계획된 취재 계획에 따라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참고할 4개 대학의 연구, 교육 및 행정제도를 관찰하고 대학 담당자를 직접 면담하고, 버클리에서는 그 대학 재학생 세 사람과의 토론회를 갖었으며, 촉박한 일정 중에도 강의실 및 특별 seminar에 참가하여 그 경험을 모교의 교육 여건과를 비교 관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모교를 선진대학의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많은

이 보도기사를 직접 읽고 싶은 동문들은 대학신문 Website를 통하여 직접 읽으실 수 있다. <대학신문 홈페이지 - <http://weekly.snu.ac.kr>>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母校를 高揚하는 재미 서울大學校 中동창회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오늘은 재미중동창회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이 基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基金은 이렇대로 우리 모교인 서울 大學校의 영구하고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母校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한 후진의 창의적인 研究活動을 돕기 위한 재미동창회의 基金입니다. 재미 동창회가 창립 10년을 들어서는 2000년 6월에 개최된 전국 평의원회의는, 7천여 동창여러분들이 19개 지부와 Canada의 4개 지역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동창회보를 통하여 이들 조직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同門들과 황적으로 연결되는 동창회로 성장하였으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적극적인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검토한 결과 역시 동창회의 제일 큰 사명은 母校와 後進을 위하여 무엇인가 보람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재미 선후배 동문들은 일찍 '50년대 6.25사변을 계기로 유학을 오시기 시작하여 미국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시고 이제는 은퇴의 나이에 들어서신 형편입니다. 미국에서 배우고 특히 체험하신 산지식 이야말로 그대로 써히기에는 아까운 지혜로 국제화시대에 발돋움 하려는 後進에게 傳授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수들이 母校를 위하여 더 좋은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대학교에서 훌륭한 연구를 하는데 적으나마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모교의 주간지인 大學新聞은 각국의 명문 대학과 대학생의 생활상을 취재하기 위하여 일본의 동경대학, 중국의 북경대학과 월남대학을 母校 後輩 학생들로 구성된 취재팀의 방문 결과를 보도하여 직접 이들 대학에 방문하지 못한 2만 여명 학생들과 실제로 보고 느낀 체험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년 미국방문 차례에는 大學新聞의 자체 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취재여행이 힘들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지난 6월 Chicago에서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모교 측 방문단 일원인 대학신문 주간 배영수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재미 중동창회가 백만불 基金을 통하여 왕복 항공 여비 \$3,600을 지원함으로써 Boston의 Harvard와 MIT, Bay area의 Berkley와 Stanford를 3명의 후배 재학생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보 89호, 91호 및 92호 관련기사 참조).

현재 등록 동문만도 7천 여명, 만 여명 이상이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미국 방문 취재가 \$3,600의 항공요금 때문에 성사가 안되고 중국, 일본, 월남대학만 기사화 되었다고 상상하면 재미동문들로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단 \$3,600로 미국 우수대학을 취재 할 수 있었듯이, 은퇴하신 先輩님들의 성의를 모아 母校에서 보다 나은 연구와 강의를 하기 위한 海外研修에 필요한 왕복 여비를 부담해 드린다면, 교환교수로 同門이 이곳으로 옮기는데 여행비등의 도움을 드리는 것은 모두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백만불 基金 募金 첫해에 108명의 동문들로부터 납입된 금액이 \$481,843.33이며 또, 11명의 同門들이 \$261,000(\$26,000 납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중 10명은 방은호, 윤정옥, 김영덕(공대 53입), 이병준, 김병수, 최수용(상대 55입), 유창남(의대 58입), 오인석, 이진구(농대 60입) 및 임낙균동문들은 anchor-donor로서 각자 1인당 2만불 이상의 납입을 約定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중에 \$343,000은 기증하신 동문들의 희망을 참작하여 \$330,000은 서울大學校 發展基金에, \$13,000은 간호대에 寄贈했습니다.

따라서, 이 基金에는 현재 금년 납입분을 포함하여 총 122명의 동문들이 \$491,818.33을 납입하였고, 현금 잔고는 (11월 24일 현재) \$145,218.33이며, 이밖에 백만불 基金을 자신의 생명보험금 \$100,000의 受惠인으로 지정한 徐東榮동문(사대 60년 졸)과 강경식동문(문리대 59졸)을 포함하면 약정액은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미네소타에 계신 김태환동문(의대 64졸), 워싱턴 DC에 방은호동문과 미시간의 정태 동문을 위시하여 여러 동문이 遺贈 및 기타 계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백만불 모금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현금으로 백 만 불을 적립하여 年平均 6%의 收益을 올리면 매년 6만불의 果實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에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우리 재미 동문들의 노력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만큼인가를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재미 동창회 등록동문 7천명이 각자 평균 \$1,000씩을 出捐하신다면, 7백 만 불이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모아집니다. 재미 서울대 동문들이 이 정도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世界化의 시대에 외국의 先進 高等教育機關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大學으로 母校를 高揚하는데 牽引車가 된다는 自負心을 우리 在美同門들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돕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도 母校를 아끼고 後輩를 사랑하는 서울대인이라는 矜持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동문여러분! 지금 당장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앞으로 수표를 적어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문여러분! 추가 "anchor-donor"의 일원으로 참여해주시거나 獻金 또는 遺贈의 약정을 해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재미 서울대학교 중동창회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위원 일동

- 方恩鎬(약대 42입) 尹延玉(약대 50입) 李丙俊(상대 55입) 吳仁錫(법대 58입) 金秉洙(상대 55입) 任洛均(약대 64입) 李龍洛(재미 중동창회 회장, 공대 48입)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리는 첫 번째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함(30면 상단에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람).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중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auusa@anuu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Sumi Jo 조수미	
1. (3:34:22) G. Rossini 악곡 / La Promessa	
2. (3:47:49) G. Verdi 오 세라! / Caro Mio Ben	
3. (5:11:40) G. Paganini 목가 / Villanelle	
4. (4:14:51) G. Rossini 세레나데 / Serenade	
5. (3:14:40) H. Dichter 보리 거대한 울림 / Let Her the people hear	
6. (3:47:30) 윤용희 교주	
7. (2:11:36) 김희선 정미 살타	
8. (4:14:50) 김승미 그대 믿음여	
9. (4:21:38) 김용진 정미향	
10. (5:38:49) G. Rossini 발코니를 그 목소리 / Una voce poco fa	
11. (3:26:25) L. Berlioz ฝัน의 울림	
12. (3:31:32) G. Verdi 1812년 6월 26일	
13. (4:31:11) G. Handel 나폴리 불꽃 피르미토 / Lucia, Chio speme	
14. (4:07:25) J. Sibeliu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서/랑/詩/集, 맨하탄 유랑극단 (서울, 문학사상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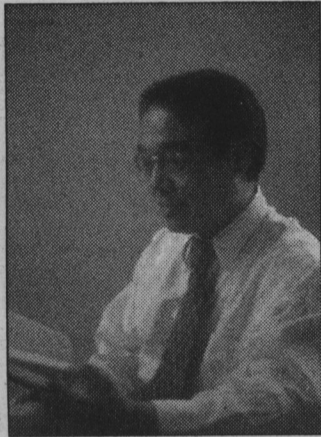
맨하탄 유랑극단

겨울 머리카락

徐亮 <의대 69년 졸>

검은 머리카락 찬 바람에 흠트리며
 걸어가는 저 여자를 보아라
 겨울 나무 잔 가지들 하늘을 찌르는
 우이동 오르막 산길에서
 웅웅 우리땀뭍의 노래를 받아치던
 돌 계곡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겨울바람은 바다로 뛰어가고
 바다는 화려한 녹색색 가슴
 화려한 옛사랑인 듯
 한 가닥 하늘하늘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적막으로
 따라랑 내 손 끝에 와 닿는
 피아노 건반이 되었다
 미국을 확 덮는 피아노 건반



미국에 와서 하는 연극은
 서울서 하는 연극과 무지막지하게 달라
 씨알머리 없는 양키들을 위해서 하는 연극이 아니라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고려 청자가 더더욱 사랑스러운
 차디찬 겨울 한밤 맨하탄 유리 빨땀 위로
 어릴 적 광릉 소풍날 어느 임금님 묘지에서 본
 침엽수 하나가 희미한 슬로 모션으로 솟아오르는 거지
 이른 새벽 야 빨리해 이걸 그냥 아이구 하는
 고려 청자빛 하늘에 오직 뻥뻥한 한인들의 들뜸만이
 떠올라 마구 떠올려 대면서 떠올라
 세종대왕의 자비로운 귀신으로
 양키들이 판을 치는 데대한 미국 땅을 넓다 밟아대는
 가나긴 평생을 기뻐서 죽고 못 사는 연극쟁이들이지
 민감하고 고집불통으로 생겨 먹은 한국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금빛 빨땀 숲 전 맨하탄이 귀가 솔깃해진다
 어머니 좋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미국이 좋으시죠



<書評> “맨하탄 유랑극장”

정재욱 < 64년도 동문 Mrs. 송관호, 미동부 문인 협회회장 >

이번에 서랑씨가 낸 첫 시집에는
 210페이지가 3부로 나뉘어서 총
 104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1부에는 '열 개의 교향곡'이라는
 명제 하에 한 교향곡 당 1, 2, 3,
 4 악장으로 시가 네 개씩 한 다발

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교향곡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5번 교향곡은 '도깨비' 교향곡, 그리고 6번은 '박달재를 위한' 교향곡이다. 마지막 10번은 '어머니' 교향곡으로서 서랑 시인이 서두에서 밝힌 바 그의 시집이 '고향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일생일대의 시들'임을 천명해 주고 있다.

1부에 비하여, 2부는 '어항주인'이라는 이름 아래 34편의 심각한 어조와 시들을 품고 있고, 이 시집에서 가장 특색 있어 보이는 3부 '배어 마운틴 소나타'에는 그의 시 30개가 한글과 영문 번역으로 번갈아 가면서 책장을 넘기게 한다. 다음은 시들은 왼쪽 페이지에 한글 시 오른쪽에는 영문시가 앞을 다투어 독자의 시선을 끈다.

미국에서 만 28년을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 온 서랑 시인은 책 첫 부분 '시인의 변(辯)'에서 나훈아의 비브라토와 목청 때를 법을 시와 인간관계에 적용시키려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또한 '바람부는 엘리제이즈 파크웨이'가 몸을 비트는 거대한 숙명 그 한복판으로—

그의 시에는 곧잘 고향을 등진 이국생활의 긴박감이 서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기 시인은 서랑 시집의 작품해설에서 다음과



무동(舞童) 檀園 金弘道

들러앉은 樂工들의 좌고(座鼓)와 피리등 三絃六角에 맞추어 춤추는 소녀의 모습.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같이 평한다.
 —나는 그의 시 세계를 통하여 영혼의 갈등과 눈물 그리고 절규와 환희를 들여다 보며 함께 떠나려간다. 그의 시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읽는 사람을 침몰시킨다. 시상(詩想)이 투명하기 때문에 시의 행마다 연마다 섬뜩하도록 진한 암시적 울림과 만한다. 시의 면밀한 이중구조에 능숙한 묘사력으로 인하여 황홀한 비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시어를 포착하여 치열하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누구의 냄새도 배지 않은 채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켜서 마치도 태아가

세상을 처음 보는 듯한 새로운 경이감으로 독자를 전율시킨다.—
 이 시집에는 아무리 책을 후다닥 읽어치우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도 그의 시를 한편씩 차근차근하게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마력이 묻어있다.

시의 분량만 해도 자작시 영문 번역 30편을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부 134편인 셈이다. 시집치고 보기 드물게 방대한 볼륨이지만 이 아담한 책자를 손에 잡는 순간 나는 전혀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았다.

<미주 의대동창회보 시계탐에 서 초록>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겨울밤 이야기들”

<편집자주> 비겁한 폭한, “自由와의 戰爭”등 다사다난했던 이 해를 보내면서 동문들이 들려주는 詩(서랑)와 火爐가의 얘기(주한수, 권혁진, 김하진, 전시륜)와 죽마고우들을 그리는 (홍일체) 글과 이청광, 오태희, 김일훈동문의 論考로 2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同門들의 글로써 만들어지는 풍요로운 지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동문들의 健筆을 새해에도 기다립니다. 동문필자 및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차

1. 서랑 - 맨하탄 유랑극단 4
2. 정재욱 - 서랑시인의 첫 시집 “맨하탄 유랑극단” 4
3. 황동규 - 미래의 詩를 향하여 5
4. 권혁진 - 한말은 고개 8
5. 김하준 - 돌멩이 7
6. 전시륜 - 브라의 매력 7
7. 이청광 - WTO의 새무역협상과 한국 및 교포 경제 8
8. 홍일체 - 알몸 “친구”여! 5
9. 오태희 - 창조주에 도전하는 생명공학 9
10. 김일훈 - 새로운 의학 윤리 논쟁 : 장기이식 장려법 10
11. 주한수 - 돼지 이야기들 11
12. 송년수상 2편 6
13. 오계숙 전시회 14

詩評

미래의 詩를 향하여

<사랑의 맨하탄 유랑극장>

황 동규 <문리대 61 졸, 서울대 교수>

사랑은 괴기한 인간이다. 한국인 의사로 뉴욕에서 살려면 의사 일에 온갖 힘을 다해도 힘드는데, 그는 시를 제대로 쓰고 악기들을 제대로 분다. 3년 전 뉴욕에 들러 그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클라리넷을 정통적으로 불었다. 피아노 대신 내영터리 음성 반주에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2번을 멋지게 연주했었다.

작년 12월 31일 뉴욕에 내린 대설을 뚫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언제 배웠는지 색소폰을 멋지게 불었다. 클라리넷과 색소폰이 운지법이 비슷한 악기인 것을 사실이지만 의사일을 보며 시를 쓰며 한국시와 영시를 위한 홈 페이지도 운영하고, 그리고 악기를 몇씩이나 붙여대는 것을 보면, 그가 정신과 의사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성장할 때 구강기(口腔期)에 흑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도 한다.

시를 제대로 쓴다고 했지만, 그는 해외에

사는 동포 시인들이 흔히 빠지는 고국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곳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삶 자체의 구조 탐구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번에 보내준 원고 제일 앞에 있는 詩 <가을비 가랑비>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시인의 작품 같아. 그러나 이 시가 의사의 시라는 증거는 '생명의 별망'이라든가 '薰風속 속' '오물아 드는 싹뿔' 같은 데서 드러나며 그래서 독특하다. 이 시가 풍기는 외로움의 분위기도 시인의 의지에서 사는 데서 오는 외로움에서 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보다는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더 진하게 보여준다. 그 외로움은 다음에 이어지는 '감춰진 겨울' '겨울을 위한 목관 이중주'등에도 그대로 스며 있다.

그가 일상적인 노스탤지어의 시인이 아님은 아버지를 회상하는 <강강수월래>만 보아도 잘 드러난다. 과거 그리움의 시처럼

한강백사장'도 '강남구 반포동'도 등장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홍안의 미소년'으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하게 역정을 내실 때 나는 생각이 튼튼해지고 세상 사랑하는 法조차 배웠다.

이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닌 가부장주의의 내부 체험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의 시는 미국에서의 삶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가끔씩 다람쥐가 아스팔트에 뛰어든' 체험도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며 뉴욕발행 한국신문 신년 시 <동해바다 그 상서로운 기운이>인 동해도 뉴욕의 동해인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미국 지명과 생활 방식이 나온다. 그건 바람직한 것이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상

식적인 시에서 벗어나어디서든 자신의 삶과 체험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이따금 고국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과거는 좋고 현재는 나쁘다, 혹은 과거는 비참하고 현재는 살만하다 라는 식의 이분법이 아닌 체험의 일부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시의 주류는 언어시(language poetry)와 소수족시(minority poetry? 여성시, 체제 반항시까지 포함해서)다. 나는 너무 언어 의식(language-consciousness)에 붙잡혀 있는 전자와 자의식(self-consciousness)에 붙잡혀 있는 후자 모두 앞으로 올시의 전단계같이 느껴진다. 사랑의 시가 재미 한국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새 시'의 미래 선상에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두 흐름에 대한 적절한 전착이 필요할 것이다. 뛰어넘는 일이란 피해가는 일이 아닌 것이다. <위의 글은 사랑동문의 맨하탄 유랑극단의 서문임>.

알몸 "친구"여!

洪一體 <필명>

"친구"여! 몸씨도 다정하게 들리는 부름이다.

"친구"여! "친구"란 심히 뽀뽀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려서 냇가에서 동네 어린 친구들과 같이 알몸이 되어 목욕하던 때가 생각난다. 내, 네 것이 크고 작다함 없이, 그저 알몸이 되어, 친진하게 물장난하며 하루를 즐겼던 일..... 그 "친구"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벌써 이 세상을 뒀는지? 아랑곳없이 그 즐거웠던 하루를 지냈던 그 알몸의 "친구"들이 내 지금의 이 가슴(마음)에 아득히 차 오르고 있네 그려!

가게에서 사탕 사들고, 내, 네 것 함 없이 히히덕거리며 고이 나눠 먹으며, 오래 오래 "친구" 되리라 약속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서 뽀뽀 하고 있으며 흑시나 나같이 홀로 연정의 마음가짐을 하고 있을까? 그러겠지! 더 없는 알몸의 "친구"들이었으니까?! 암 그렇기 말구. 그럴거야!

오늘날 같이 나, 네의 사리 살별한 삶에 시달리는 한 틈에 그렇게도 친진하고, 하얗게 때묻지 않은 알몸의 "친구"들이 몸씨도 그림도다.

오늘의 친구란 그저 곁에서 같이 일하고, 이때 저때 한 두 번 만나 "친구"여 하며 가상적으로 불러

보는 사리에 혈안이 되고 하치도 않는 자존심에 얽매어 사는 그런 삶 속의 친구가 그 친진했고, 크고 작음 탓 없었고, 내 것도 없었던 때의 하얗게 때묻지 않은 알몸의 "친구"들과 비교나 뽀뽀 보나! 그 하얗게 때묻지 않은 알몸의 "친구"들이 아쉽도록 그림다.

"친구"여!

그 "친구"들이 이 석양에 드는 마음에 아쉬운 그리움만 더해줄을 어찌할 수 없으니 어이할꼬?!

누군가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는 운명을 어찌할 수 없다" 했음을 읽은 적이 있다. 무척이나 비관적으로 들려지는 표현이라 생각된다만 죽어 가는 길(인생)에 별의별 괴롭다 써가면서 무심히 뽀뽀

보는 조각난 혀의 독기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이 인간의 운명일 거다 생각해 본다. 크고 작음 없이, 내, 네 것 탓 없고, 알몸으로 냇가에서 친진하게 물장난 치며 놀았을 때 과연 삶이 그러하리라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그저 알몸으로 친진하게 물장난 치며 놀며, 한없이 즐거웠던 그 순간 순간이 영원 영원하였을 뿐이었으리라.

"친구"여!

이 오늘 차디찬 사리에 얽매어 사나, 그 때의 하얗게 때묻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더욱 그림다. 운 전하다 누군가 추월하면 성이 불컹 나고, 삶은 소리 한마디 무심히 뽀뽀 받았을 때면, 어디선가 화가 발각 나는 오늘의 삶에, 옛 친진하게 물장난 하였던 아쉽도록 그리운 "친구"들과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얻으면 잃게 마련인 연계 속에 태어남이

지만, 우리 보통사람들은 마음 다름을 기후 변화따라 우리 자신들을 다룰 줄 알 같이 그 방도를 찾아 터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진작 보통 사람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니 말이다(탐내고, 성냄으로 해서, 또 무지함의 독으로 시비증에서 헤어나지 못함에서 일 것이다).

"친구"여!

아마도 내 시들하게 저물어 가는 갈대 같은 마음이 그 친진하고 하얗게 때묻지 않았던 아쉽고도 그리운 옛 "친구"들 끌어 들임도. 잠시도 쉬지 않는 탓임에 분명하다.

오늘의 삶이 그 옛날 것 같지 않고, 오늘날의 친구들이 그 옛날 알몸의 시비곡절 몰랐던 "친구"들과 같지 않아서이겠지! 냉소해 본다.

내 시들어 가는 석양에 드는 마음이 일초 더 흔들리며 시들해 지는구나!

시비증에 탐진치가 탈이로다. 아마도 사리에 눈먼 어름장같이 차디찬 삶이 아쉽도록 그리운 옛 "친구"들에의 연모를 더해가며 내 평탄치 않은 걸음걸이를 더 휘청이게 하는가 보다.

허기가 부처님께 삼천 배를 올린 후에야 면접을 허용했다는 저 유명한 성철스님께서도, 입적시

그의 생녀의 이름을 외웠다 들었다. 혈연의 정근이 그렇게 강함을 뜻하지 않나 싶다. 무상대도를 득하였으리라 믿는 큰스님들조차도, 그 뿌리를 완전히 여이지 못하여 서가 아닐까 음미해 본다. 하물며 우리 보통사람들이 사리에 혈안이 되어 살면서 어찌 그 짙긴 뿌리를 뽑아 풀려날 수 있으리요?!

삼조 승전대사의 "신심명"을 생각해 본다. 대사는 유명한 믿는 마음의 노래 서두에서 말씀하셨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취하고 버림을 여이고(버리고)

미워하고 사랑함을 여이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시비증으로 또 삼독으로 해서, 맹인이 되어 갈 길을 잃고, 해매는 우리들에게, 탄탄대로를 가리키는 계시가 아니겠는가?!

내 아직 눈이 멀어 아쉽도록 그리운 옛 "친구"들에의 연정의 흔들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을 갖지 못한 오늘의 나의 아쉬움이 또 그 눈멀음을 더해감을 어찌 모르랴만 그 흔들리는 갈대같은 마음을 다루지 못하니 탈이로구나!

특 트인 거침없는 길을 내 이 석양에 드는 삶에나마 흑시나 하며 걸어보아겠다고 마음 다듬어 본다. 내 좀더 정진해야겠다! 심히 취하고 버림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여인 지극한 경지에 흑시나 듣기 위해서라도..... "친구"여

<위 글은 동문 필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명을 사용함.>



위의 사진은 이 글과 관계없으나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임.

죽음으로 향함이라면, 아쉽도록 그리운 옛 친구들이 이 시들해 가는 마음에, 어이 이같이 매섭게도 흔들림을 줌은 무언 일일꼬?!

한 철인이 '사람(여인)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다'고 했다. 잠시도 쉬임없이 고요치 못하다는 말일게다. 선방에서는 잠시도 쉬임없이 고요치 않은 마음을 다스려야한다 했다.

실은 스님들은 정진 맹진하여 마음 다스림을 터득하려는지 모르

2001 送年수상

< 편집자주 > 送年隨想 :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9.11테러사태의 전모의 “事實” 규명과 그 여파가 낳은 意義의 진정한 반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그러나 그 정치적 동기가 여하하더라도 이 反人間的 行爲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오늘의 두 斷想을 소개함.

“美國”

“自由의 나라” 미국땅! 9월 11일 화요일 8시 48분과 9시 3분에, 空想 과학영화 같은 가미가 제 돌격대의 두 비행기는, 건너편 Ellis Island 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본주의 미국의 心臟과 같은 The World Trade Center와 Wall Street 주변을 순식간에 眞珠灣의 잠수함처럼 침몰시켰다. 6천 여명으로 추산되는 死傷者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영웅적인 구출노력에도 불구하고, 700여명을 제외하고는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날아가, 이제 영원히 찾을 길 없는 行方不明者로 되어갈 것 같음에도 이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美國! “우리는 단결하였다(United We Stand)”, “自由와 테러와의 戰爭”, 온 거리에 필력이는 성조기의 물결과, “하나님 미국을 축복 하소서 (God bless America)” 하는 口號들은 마치 소울과 외양간도 무너진 옛 텍사스 牧場의 주인의 아우성처럼 처절하게 들린다.

1980년대 소련의 베트남이었고, 척박하고 가난에 찌든 아프카니스탄 山野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兇단(絨緞) 폭격하는 최선에 전투기의 굉음(轟音), 소설에 나오는” 지리산 속의 南部軍과 같은 Northern Alliance와 Taliban 정부간의 동족상잔(同族相殘), 조준 착오로 민간인 밀집지역까지 두들겨 부수는 미국! 얼굴없는 테러범들, 임꺽정의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의적(義賊)의 기개와는 거리가 먼 이 냉혈폭한(冷血暴漢)들! 이들을 세상에서 추려내고, 조각난 유리병 “自由의 나라”를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인가? 우편물에 묻어와 국회의사당과 대법원을 일시적으로나마 문닫게 한 탄저균(Anthrax)이 불러오는 “bio-terrorism”의 공포는 언제 사라질 것인가? 안절부절하는 美國人을 위하여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는 방독면, 미국사람들이 Toyota Camry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시험결과를 냈다고 보도되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 Sonata 등등 우리로서는 명암이 중첩되는 어지러운 시절이다.

(유정호의 “가을비 속의 想念”에서)

High Impact

In any overview of the ideas of 2001, the massacre of Sept. 11 is unavoidable. However evil, it was an idea.

The idea was twofold: to bloody the West and to do so by using the West's own tools. The weapons were made by us: our airplanes, our fuel, our civilians. The propaganda coup was made possible by us as well: the hand-held video cameras that recorded the horror; the round-the-clock coverage on television stations across the world. As an example of asymmetrical warfare, it was hard to beat.

It isn't hard to see the conceptual elegance of this idea, or to see that this was part of the message: we're ruthless but we're also intelligent. Many commentators, though horrified, were nonetheless impressed. "We had to recognize," Norman Mailer observed, "that the people that did this were brilliant."

But do we? In retrospect, the idea of Sept. 11 seems highly overrated. Like many foolish notions, it may have the allure of superficial intelligence, but it was, in fact, deeply unoriginal and profoundly misconceived.

To begin with, very little about this idea was new. Suicide bombing and hijacking were established techniques. The target was a familiar one—similar thugs targeted the same buildings only eight years before. Diving an airplane into a landmark had been contemplated in a thwarted strike at the Eiffel Tower. Even the teenage nihilists of columbine High school had thought of crashing a plane into the twin towers.

And Al Qaeda clearly miscalculated. By committing such a vast atrocity, they all but guaranteed an overwhelming response, one that would cripple the network's finances and military bases. Imagine if Al Qaeda had set off several suicide bombs across America, killing a few dozen people. They would have made a point, instilled fear—and quite possibly have gotten away with it, as they did when

they blew up the U.S.S. Cole in Yemen. Instead, the terrorists decided to ratchet up the stakes. It was a fool's - or a fanatic's - choice.

In some ways, then, Sept. 11 really was a suicide mission—for Al Qaeda as a whole. It didn't just kill the terrorists involved; it sealed the fate of their superiors as well. It wrenched the Taliban from power and imprisoned dozens of Al Qaeda operatives across the globe.



to create maximal terror with minimal bloodshed. The attacks of Sept. 11 were designed to create maximal terror with maximal bloodshed: military-scale devastation, without any official military invol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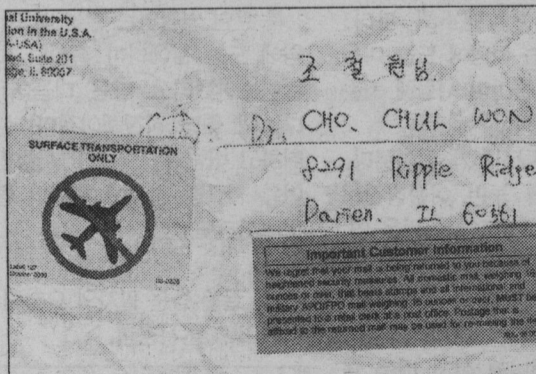
Those who blame Americans for not foreseeing either even have an obvious point. In the 1990's, we were warned again and again of the possibility of mass terrorist destruction in the homeland. We preferred not to listen. The cover folder of the 1998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m even had a picture of the World Trade Center on it, with cross hairs superimposed on the upper floors. You can't get more direct than that.

Yet blaming ourselves for naivete misses an essential point. Part of what makes a civilization civilized is a natural reluctance to believe unconscionable evil until it is realized in front

of us. This is not a failing. It is an achievement. Part of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e slow accretion of social and civic trust that enables us to live together in highly complex and interdependent ways.

That achievement was severely dented on Sept. 11, and our civilization is less civilized as a result. But it is also more mobilized, more conscious and therefore more alive. If our response to Sept. 11 shows anything—the heroism of the rescue workers, the patriotism of millions, the prosecution of a tenacious and unrelenting war on terrorism—it is that civilization, though wounded, is far from over. In fact, the one incontrovertible fact of post-Sept. 11 America is that civilization can clearly, ruthlessly defend itself. Call that the reverse idea of the World Trade Center massacre: the idea that, when mortally threatened, freedom can fight back. And that's an idea that will last much longer than the dark "brilliance" of Osama bin Laden (by ANDREW SULLIVAN, 뉴욕타임스 매거진, 12-9-01에서 전재).

of us. This is not a failing. It is an achievement. Part of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e slow accretion of social and civic trust that enables us to live together in highly complex and interdependent ways. That achievement was severely dented on Sept. 11, and our civilization is less civilized as a result. But it is also more mobilized, more conscious and therefore more alive. If our response to Sept. 11 shows anything—the heroism of the rescue workers, the patriotism of millions, the prosecution of a tenacious and unrelenting war on terrorism—it is that civilization, though wounded, is far from over. In fact, the one incontrovertible fact of post-Sept. 11 America is that civilization can clearly, ruthlessly defend itself. Call that the reverse idea of the World Trade Center massacre: the idea that, when mortally threatened, freedom can fight back. And that's an idea that will last much longer than the dark "brilliance" of Osama bin Laden (by ANDREW SULLIVAN, 뉴욕타임스 매거진, 12-9-01에서 전재).



< 탄저병(Anthrax) 병원 소동으로 자유롭게 우체통에 넣은 재미동창회보가 요주의 우편물로 낙인 찍혀 되돌아 오다. >

돌맹이는 “돌+MEN”의 중복화

金河俊 <(사대 77년 졸), 해외개발(주) 대표>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 또는 거석유적지의 분포를 보면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의 브리타니 지역, 러시아의 카프카즈 지역, 인도 지역, 중국의 절강성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과 우리 나라, 특히 전라남도 지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고인돌은 영어로 DOLMEN 이고, 선돌은 MENHIR이다. 켈트어로 “돌”을 의미하는 “MEN”에서 유



전북 고창군 도산리 고인돌.

래한 것이다 우리말로 石(석)을 돌맹이 또는 돌망, 돌막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사투리가 되었지만 한때는 한 지역의 대표어였다. 한 지역에 두 종족 또는 두 언어권이 충돌 융합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같은 의미의 언어 중복화이며, “가마솥”, “모찌떡”, “임금 왕검”, “남구 남기” 등의 예가 있으며 특히 고대어 및 일본어에서 많이 발견된다. 임금의 “임”은 한자의 높임 말 “任”에서 유래한 것이며, “금”은 우리 고대어로 왕 또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검”에서 유래했다. “왕검”

도 마찬가지이다. 사투리로 나무를 “남구” 또는 “남기”라고도 하는데 고대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는 신라어 계통의 “나무”와 고구려 계통의 “기”의 중복화이다. 고구려어 “기”는 일본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우리말에도 작대기, 막대기 등에 흔적이 남아 있다. 현대에서도 중복언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완두콩, 매화꽃, 상가집, 칠월달, 역전앞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나는 돌맹이의 돌과 맹이는 “돌+MEN”의 중복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유럽의 거석문화는 기원 5천

년, 인도 및 중국, 우리 나라 등은 기원전 2천-2천6백년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 영국에서 시작된 고인돌 문화가 프랑스, 독일, 시베리아 루트로, 또 하나는 영국에서 지중해 지역을 거쳐 인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절강성 지역 루트로 전파돼 온 것이 아닐까? 우연인지 우리 고대어로 마을을 뜻하는 “벌”과 유사한 발음의 도시명이 위의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다. 영국의 리버 풀(pool) 프랑스의 파리(par), 보르도(bor), 브리타니(bur) 등 유럽 및 시베리아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버그, -브르크(-burg) 등의 지명에서 “bul”, “bur”(벌)과 유사성을 추측해낼 수가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카불(bul), 인도의 칸푸르(pur), 나그푸르(pur), 자이푸르(pur), 말레이 반도의 싱가포르(pore), 쿠알라룸푸르(pure), 인도네시아의 풀라우 시프라(pul+pur), 우리나라의 새벌, 서라벌, 서울, 신라 그리고 일본의 사뵘로와 하라라는 지명이 그것이다. 하라는 벌에서 버라, 버라에서 하라로 변음한 것이고 사뵘로는 우리 고대어 새벌에서 유래했다 추정된다. 新羅라는 국명도 새 新(신)과 벌릴 羅(라)를 사용한 새벌, 새로벌의 단순한 한자화이다.

전 세계적 언어를 살펴보면 신체어 및 호칭어의 기층 언어가 많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위의 추정이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중북 제원 황석리 고인돌에서 발견된 남자의 복원된 두형은 정구머리에 코가 크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장두형이고, 신장이 커서 우

리의 조상들의 일반적 체형과 많이 다르게 보인다. 현 서양인 또는 인도인에 가깝게 보여진다. 고대의 황석리인들이 “MEN”이란 언어와 함께 고인돌 문화를 “벌”이라는 언어와 함께 도시문화를 가지고 기원전 5천년 전에 영국을 출발, 한 그룹은 시베리아 루트로 또한 그룹은 지중해, 인도양 루트로 우리 나라와 일본에 도달했던 종족의 후예 또는 그 일원이 아니었을까?



오산리 선돌

전시륜

“생전에 단 한 권의 책을 남기고 싶어하였던
故 전시륜 동문(1932-1998) ”

故 전시륜 동문

(1932-1998)

브라의 사용은 여성미 향상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브라는 젓가슴을 우주 인력의 당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숨기는 비법을 통해 심리적인 미감(美感)을 조성한다. 브라 사용의 심미적 원칙은 저항의 미를 창조한다는 데 있다. 유방은 여체(女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사인으로서 성인 남자들은 화장 빈도수에 정비례해서 주책없이 커져가는 원뿔 곡선체에 대해 자연적인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브라는 남성의 알고자 하는 의욕을 성공적으로 방해한다. 그러나 그의 효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여자는 숨통치까지 쑤셔 박으면서 그녀의 보물을 밤낮으로 온 세상에 광고하면서도, 브라를 함으로써 그녀의 신비를 드러내기를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남자들의 호기심은 더 강화되어 브라 안에 숨겨진 실체에 대해서 제멋대로 신화를 조작한다. 이리하여 브라가 남성의 정당하면서도 집요한 호기심을 막고 꾸짖은 것은 마치 희랍신화에서 나오는 탄탈로스(Tantalos)가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과 음식을 잡으려고 하면 물과 음식이 자동적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내 경험담을 얘기하면, 브라가 조성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독자들이 더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랐던 한국의 시골 처녀들은 치마끈을 젓가슴 위까지 추켜 올리고 꼭 짖어 눌렀기 때문에 여자의 젓가슴이 남자의 것과 판이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그러다가 여자와 결혼한 뒤 아내가 예를 낳고 아이에게 젓을 먹일 때 나는 시비감에 사로잡혔다.

브라의 魅力

비가 온 뒤 없었던 버섯이 땅에서 솟아나듯, 어린애를 낳게 되면 여자 가슴에 우유통이 지역적으로 생기는 줄 알았다. 하긴 꽃이 져야 호박이 열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런 한국적 노출법에는 드라마의 서스펜스가 없는 탓에 서양 여자들 마냥 남자 눈을 호러서 새로운 미를 창조하지 못한다. 브라가 창조하는 미의 깊이는 브라의 두께처럼 얇다. 그러나 브라는 사춘기 남자의 눈을 현혹시키고 막강한 상상력을 촉진시킨다. 수전노에게는 돈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력제를 찾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폼밭바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동양에서는 중매 결혼이 상례지만, 연애 결혼 위주의 서양 사회에서는 시집을 잘 가려면 미를 창조하고 광고해야 된다. 이 점에서 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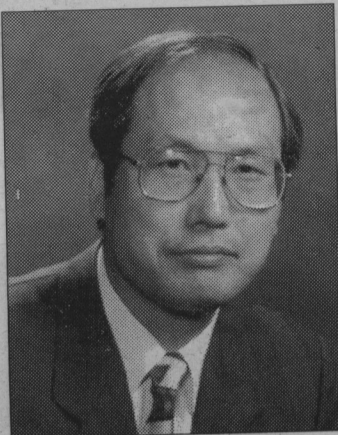
라는 거룩한 역할을 한다. 여자의 치마 길이가 얼마만큼 되어야 적절하고, 물었을 때 입어당(林語堂)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자는 심적으로 항상 은폐와 노출의 욕망을 반반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와 다리의 반을 감추고 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잊그제 잡지에서 밀로의 비즈니스 여신상이 브라 광고에 스인 것을 보고 나는 한 번 기염을 토해 보겠다고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전시륜 동문의 유고집 “어느 무명 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에서 전제.)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업을 중단하고 도미하여 미국대학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삶을 지혜를 재미있게 담은 수상록 “어느 무명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350면,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0)을 유가족 MRS. 전(전건희 여사)에게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가격 : \$12.00 (송료 포함)
주문처 : Keon-Hee Chon
21852 Locomotive Terrace #102
Sterling, VA 20166
전화) 703-430-3896

WTO의 새 무역협상과 한국및 교포경제

이 청 광 <상대 61년 입, 경영학박사, Pacific States University 교수>



1995년 1월1일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회원국무역장관들이 참석한 각료회의가 금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Qatar의 Doha에서 열렸다. WTO의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이 회의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하여 새무역협정을 맺을지도록 결의하였다. 이 협상은 아마 Doha Round라고 불리리라 본다. 주요 협상 대상분야는 농업, 서비스업, 공산품관세, 지적소유권, 투자, 환경, 정부구매의 투명성등으로 WTO탄생의 모체인 Uruguay Round보다 더 높은 시장접근과 시장 개방을 목표로하고 있다.

또 이번각료회의의 큰 성과는 세계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를 가진 중국과 미국의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신흥공업국 대만을 141, 142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여 준 것이다 이제 글자 그대로 "세계"(World) 무역기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전 세계의 무역을 총

괄하는 기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WTO의 회원국 무차별원칙에 의하여 더 이상 중국상품에 차별적인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을수 없게되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자국국내시장에서 또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게되었다.

지난주 11월 21일에 한국에서는 농민 1만여명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농가소득 보장하라"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금년 논농사의 대풍작이 과잉생산을 가져와 쌀값이 폭락하게되었고 양곡 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수매가의 인하를 정부에 건의한데 대한 항의였다. Uruguay Round로 쌀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는 한국정부가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막대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이는 과대공급을 낳아 가격하락으로 이어 졌고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가부채 증가를 가져오고 말았다.

쌀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은 미국, 중국, 태국에 비하여 6내지 9분의 1 수준이다. 비

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원칙에따라 가격경쟁이 도저히 안되는 쌀생산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장려할것이 아니라 싸게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대신 고가의 특산물 재배를 권장하거나 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쌀수입을 제한할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현상에서 식량자급자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이다.

WTO가 재미교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섬유업(직물, 의류, 봉제업)이라고 본다. 섬유업에 종사하는 교포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공산품의 세계무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에 의하여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섬유제품만은 예외로 GATT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섬유다자협정(Multifiber Agreement:MFA)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이 협정에서 인정된 수입물량제한제도 즉 수입쿼타

(Import Quota)를 모든 선진국들이 실시하여 왔다.

미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출할수 있는 양을 각 수출국에 할당하여주고 이 할당된 양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면 그 초과량은 다음해 1월 1일까지 보세창고에서 기다려만 한다.

미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의 일부 섬유제품은 이미 금년 10월, 11일월에 미국수입쿼타를 이미 채워 그 품목들은 2002년 1월1일이 되어야 미국내로 통관하여 들어올수있다.

1994년에 합의된 Uruguay Round에의하여 섬유무역이 "직물과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로 WTO에 합류되었다. 이 ATC에 의하여 섬유

유쿼타가 2005년 1월 1일에 완전 제거된다.

섬유쿼타가 없어지면 이 쿼타에 묶여 대미수출을 제한하여온 나라들은 원하는 전량을 수출할수 있게되어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 상당하게 유리한 대미수출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수입쿼타로 수입량을 제한할수 없어 미국내 섬유 산업은 전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들은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 대미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3년이면 없어질 섬유수입쿼타 소멸에 대비하여 국내 섬유업계는 값에의한 경쟁보다는 품질과 신속 생산공급에의한 경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되리라 본다.

통신,생산기술 그리고 수송의 발달이 상품생명기간 (Product Life Cycle: PLC)의 점진적인 단축을 가져왔다. 속도가 점점 중요하게 된다. 소비자의 요구를 경쟁자보다 더 빨리 채워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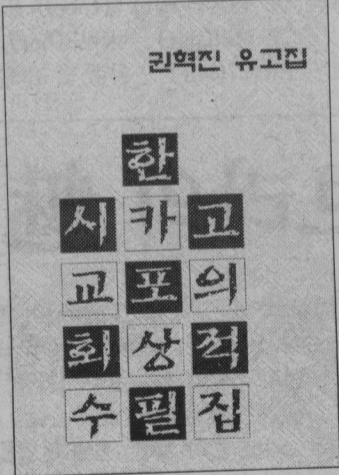
그러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좋은 품질로 신속히 제조공급하는 것이 싸 값보다 더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

모국 한국기업이나 미주에 있는 교포기업인 모두 이제 무한경쟁의 새 무역질서에 살아남을 길을 꾸준히 모색하길 기대한다.

2001년 11월 26일

한 많은 고개

故權赫鎮 <문리대, 60년 졸>



옛날 읍지로 4가에서 출발하는 전차의 북쪽 종점은 돈암동이었다.

돈암동에서 느린 고개 길이 이어지고 고개 꼭대기 오른쪽에는 일본군의 기사포대가, 왼쪽에는 언덕 위에 무당 집이 하나 있었다. 일컬어 이 고개가 그 한 많은 미아리고개로, 고개를 넘으면 길음교가 있고 그 오른쪽은 시장, 왼쪽은 공동묘지로 가는 오솔길이 있었다.

미아리고개 오름길 양옆은 낭떠러지로 그 밑에 기와집들이 늘어섰고 내림길 오른쪽은 조금 가파른 산이, 왼쪽에는 길보다 낮은 언덕들이 파상했다. 산은 온통 아카시아로 뒤덮였고 여름날 새벽이면 한 해에 몇 차례씩 아카시아 니뭇가지에 목을 맨 조선사람들의 늘어진 시체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덕 위 무당 집 처마에는 청사초롱이 저주처럼 매달려 있고

겨울밤 거기에 불이 켜지면 그것은 귀신의 곡성처럼 섬뜩함을 퍼트려 나갔다.

초겨울 바람결을 타고 슬프게 퍼지는 여인의 울음이 한 달이면 몇 차례씩 밤을 지새웠다. 그 즈음 미아리에 사는 사람들은 찢어지는 가난과 겨울밤을 울어 새우는 여인의 한으로 가득 차 있었나 보다.

돈암동에서 서북쪽 꼬부라진 산길을 타고 정농리 골짜기에 이르는 또 하나의 느린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그 유명한 아리랑 고개이다. 소나무 사이를 굽어 도는 산길마다 새 소리가 들리고 풀꽃이 시름없이 피어있는 구비마다 한숨이 서려 있었다.

미아리 고개와 아리랑 고개는 이제는 잊혀져 그 이름만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정농리 산길로 돌아가는 아리랑 고개가 체념의 고개였다면 의정부로 향하는 미아리 고개는 멀리 만주와 연결되는

한의 고개이자 공동묘지로 향하는 북망의 길이었다.

세상이 변하면 서정도 변한다. 그 즈음 사람들은 여름 미아리 고개에 앉아 아카시아 꽃잎을 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먼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지계품팔이 이외는 일자리가 없었던 때라 초여름 북한산 너머 지는 석양과 힘없이 고개를 오르내리는 아낙네들의 무거운 발걸음에 시름을 실었던 그런 일제말엽이었다.

그때는 세상이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왕지사 가난하게 산다면 그 좁쌀스럽고 양증스러운 일

본 놀만 없으면 세상에 때묻은 정만이라도 남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었다.

성밖 가난한 사람들이 일본놈과 붙어먹는 나쁜 성내 사람일 수 없었으니 사람의 발진은 굵은 소같이 하나같이 느렸고 눈은 언제 나 먼 산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역사는 恨의 역사라 했다.

환갑이 되면 그 없는 살림살이를 줄여서라도 동네에 떡을 돌리고 막걸리 상을 차렸다. 육십을 넘게 살만큼 건강하지도 못했고 병을 이겨낼 만큼 먹을 것이 없었던 때도 아니었다. 먼 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우리네 눈에는 시름과 이루어질 수 없는 체념이 담겨져 있었다.

손목을 한 번 잡으면 꼭 시집을 가야만 할 것으로 알았던 그때의 처녀들.

친구가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그런 상념에 지새우던 우리네 젊은이들.

문득 고향이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고향은 먼 하늘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바쁜 발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발랄한

젊음이 고향을 찾지 않는다. 고향은 석양의 느린 해 무늬 속에 있고 아쉬움이 새겨진 산하에 묻혀 있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사이에 사십 년만에 통일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집 떠나 객지를 헤매던 탕아가 사십년 만에 두고 온 산하, 먼 산, 먼 고향을 바라다보는 마음이 있다.

미아리 고개 -- 수많은 사람이 상여 등에 실려 공동묘지로 향하던 길가. 서대문 감옥에 오빠 만나러 가는 여동생의 가슴 설레임.

이제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는 서로 불러 볼 이름조차 없어질 것이라던 작가 황석영씨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네 젊은이들은 그들의 형과 아버지들이 먹고사느라 바빠서 잊었던 고향의 꿈에, 향수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다.

민족은 이래서 영원하다 하지 않는다.

<위의 글은 권혁진 동문의 유고집 (정태호 편, 대구, 새삼 출판사, 2001년 7월 20일)에서 옮김. 이의 전재를 허락한 유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에 도전하는 생명공학

오태희 <의대 64졸·Yale 의대교수>

이 글은 일부 생명공학자가 시도하는 인간복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지 학구적 논쟁은 아니다. 생명공학자가 대부분 세포생리학이나 세포생리해부학 학자이기에 일반 독자들을 위하여 세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하고 글을 계속하고자 한다. 설명에 부족한 점이 많을지도 모르니 전문분야 선후배 동창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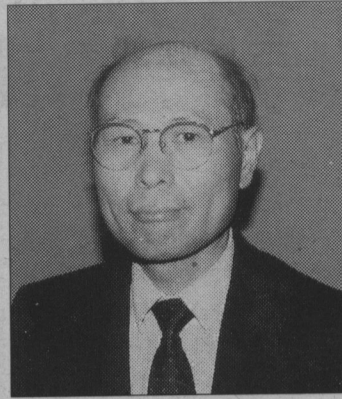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기본 단위이다. 물에서 사는 Ameba는 세포 하나로 구성된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고 그 속에 세포핵이 있으며 핵은 또한 핵막으로 싸여 세포핵과 분리되며 핵속에 염색체와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다. 세포는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하여 필요한 화학물질을 신진대사로 흡수하고 배설하며 세포분열로 증식한다. 예를들어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포가 신진대사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죽는 것이다. 사람의 세포는 혈액세포를 비롯하여 뇌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등등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세포수는 생체조직 1 gm에 1 billion (10억)으로 가정하는데 몸 무게가 100 kg 사람의 세포 수는 100 trillion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Trillion은 13자리 숫자로 백만에 백만을 곱한 숫자라 상상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신체는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발톱 끝까지 살아서 활동하는 세포의 덩어리이다. 세포 활동의 원동력은 세포막 안팎의 전해질의 차이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이다. 어린이가 자라는 것은 세포가 세포분열을 하여 증식한다는 얘기인데 성인이 되면 대부분 세포는 성장을 중지한다. 사람의 질병은 주로 인체의 정상세포와 인체에 불합치한 비정상세포인 박테리아와의 죽고 사는 전쟁이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불법침입한 Terrorists로 세포에 더부살이하면서 세포를 잡아 먹고 인체 조직을 파괴하는 암을 만든다. 박테리아의 크기가 보통 백만분의 일 (1 micrometer) 미터인데 세포는 박테리아 보다 다섯이나 열곱절 크고 바이러스보다는 30곱절에서 600곱절이 크다. 아무튼 바이러스가 세포보다 몇 백곱절 작으니 발견하기가 힘들고 세포에 쉽게 더부살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몇 백곱절이나 몇 천곱절 확대하여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보인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미세한 세포의 하나인 정자와 난자가 단 하나씩 서로 만나 수정이 되면 자궁벽에 착상하여 자라면서 크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 특정한 단계를 거쳐 세포분열을 시작하고 인간으로 탄생하는 사실이다. 세포가 세포분열로 증식한다는 사실은 백여

년 전에 이미 알려졌으나 본격적으로 세포분열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지는 지난 20여년에 불과하다.

화제를 돌려, 2001년 노벨생리학 및 의학상은 세 사람의 생리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미국의 Leland H. Hartwell, 영국의 R. Timothy Hunt 와 Sir Paul M. Nurse 이다. 미국의 하트웰은 MIT (Ph.D.) 출신으로 Washington 주립대학 교수이며 씨앰 Fred Hutchinson Cancer Center의 소장이다. 이 셋 생리학자들의 업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나에게 없다. 구태여 설명을 하면, 그들은 세포의 생성주기를 조정하는 근본적 조정인자 key regulator를 발견하여 모든 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정지하는지 면밀히 연구하여 생물학과 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21세기 임상의학의 숙제인 암의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근래에 일부 생리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며 그 동안 급속도로 발달한 생리학으로 무장하고 신의 섭리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세포분열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특수전문 지식을 습득한 과학자, 이른바 생명공학자들이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그것도 똑 같은 사람을 여분으로 만드는 인간복제를 하겠다고 나서서 사회적인 두통거리를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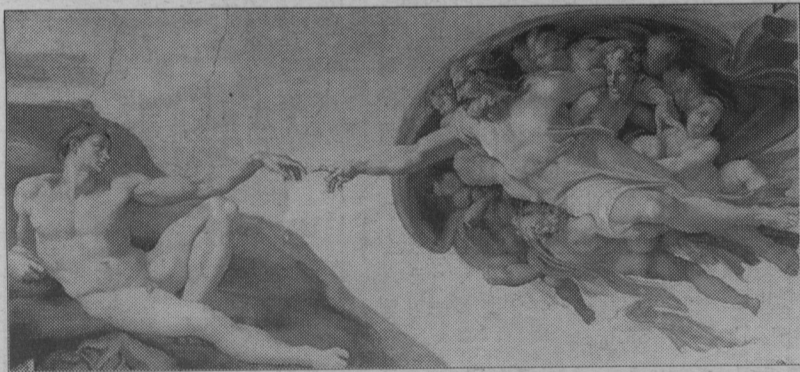


있다. 동물의 복제는 이미 성공한 지라 인간복제도 가능하다고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이다. 인간복제는 불임증 환자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일과는 기술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저 인공수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생명공학자가 똑 같은 인간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실험도 실험이지만 정치와 경제, 종교, 윤리, 도덕 등 사회제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하고 의회가 인간복제 금지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인간복제는 창조주의 신비에 도전하는 일이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일은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다르고 민족과 문화가 다르고 과학과 종교가 아무리 달라도, 사람을 컴퓨터에서 찍어 내듯이 똑 같이 만들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명공학이 인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것은 경이할 일이지만 인간복제는 생명공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신비를 터득했으면 다행이지, 동물도 아닌 사람을 만드는 실험을 하겠다고 할 말이 없다. 인

간복제가 성공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형제 친척이 없는 실험실 고아를 만들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기가 없는 집에 선물할 것인가? 모처럼 어렵게 만든 인간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으면 다시 만들 것인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그 시원치 않은 인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실험실 도구로 인간을 만든다니 그 보다 더 잔인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주어진 것이 필요에 따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과학의 발전은 환영할 수가 없다. 생명공학자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만들어도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제발 인간복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을 마치기전에 인간복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생명공학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력과 시간과 돈과 용기가 있으면 사람을 만들때에 목에서 시작하여 앞가슴과 배 한가운데를 지나 배꼽 아래 끝까지 zipper를 하나 달아 주기 바란다. 머리둘레에도 지퍼를 하나 달면 더욱 좋을 것은 물론이다. 몸과 머리속을 지퍼로 쉽게 열고 닫아 어디가 아픈지 당장 알아 내어 치료할 수가 있다면 그 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Zipper 사용 설명서와 unlimited warranty를 반드시 첨부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연락처를 명시하기 바란다. 생명공학자는 누가 장난감을 만드는 줄 아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복제가 실험실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Adam의 創造 미켈라젤로(1508-1512), 프레스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 중 아담의 탄생을 표현한 것

총 동창회 소식

간호대학 모교 방문의 날행사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10월 16일 모교 두레 문화관에서 졸업 30·4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 주최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모교 박물관, 중앙도서관등을 견학했으며, 수정궁에서 모교교수 및 동문간의 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교수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李恩玉학장에게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金奉寅(71년

졸)동문이 「Indian Head Massage」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金明淑(71년졸), 朴人喜(71년졸), 徐泳淑(71년졸)동문이 각각 「Korean Liaison」, 「뉴욕의 방문 간

호사업」을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6년만에 다시 모교 노전극장에서 동문 아우회를 개최,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동창회 행사 중 최고의 참석률을 보였다. 오랜만에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서 이뤄진 이번 아우회에 참석자들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그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하루를 보냈다.

<서울동창회보 전제 >



재미 동창회보 투고 요령

◇주제 및 내용: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원고 길이: 제한 없음

◇투고요령

e-mail 주소 : snuausa@snuaa.org

▶fax : 원고 (욕필원고 혹은 타지된 원고와 사진을 꼭 보내세요.)

fax) 847-981-1465

▶자료우송 : SNUAUS

790 Busse Rd. Suit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847)981-1464

◇원고마감일: 제한 없으나 그달

계재될 원고의 마감일은

매월 25일임.

I. 장기이식 논쟁의 현재

전번 동창회보의 "인간복제와 줄기세포"라는 훌륭한 특집에서 윤리적 문제도 잘 다루어졌으며, 부시대통령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크리스마스 후에 있을 상원투표결과가 주목된다. 공화당 스펙터-상원의원이 언명한 "줄기세포 연구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꽤 고무적이며, 이 연구가 성공하는 날에는 줄기세포가 장기이식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21세기 암 정복도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학의 윤리논쟁이 얼마 전에 불거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2001년 12월 1-4일) AMA(미국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특기할 기사는 장기이식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는 사실이다.

장기이식과 관련된 뇌사의 윤리적 문제는 오랜 논쟁 끝에,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주요국가(중국 제외)에서는 장기이식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의 한계선이라 할 "장기의 매매"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법으로 엄금 조치되어있으며, 1984년 10월에 제정된 "미국 장기이식 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에도 금지사항이 명기되어있다.

이식을 위한 장기는 자발적 기증에만 의존하고있어, 이 방법으로는 현재 장기이식 대기환자 78,000명 중 25% 만이 혜택을받게되어 결과적으로 나머지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매년 6 천명 이상의 대기환자가 장기이식을 학수고대하다가 받지 못한 채 죽었으며, 금년에도 1만명 이상이 그러하리라 예측된다.

이식에 적합한 무수한 장기들이 땅속에 내버려지는데 대한 도덕적 회의마저 생길 것이다.

AMA 간부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도적인 이유를 내걸고서 AMA내에 "장기기증 지불플랜(organ donation pay plan)"의 연구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뉴

새로운 의학윤리논쟁 臟器이식 장려법에 대하여

김일훈 <의대 51입>

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큰 주 출신의 대의원들이 주도한 이 제안의 골자는 장기이식을 장려하게될 "장기 매매"에 있어서 특히 윤리적인 면의 "득과 실"을 연구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 제안 자체가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저항세력을 만나, 대의원 549명중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이 제안은 이번에 실패했다.

AMA의 윤리법사위원들을 비롯한 주요의원들은 여기에 굴복치 않고, 명년 6월 정기총회에 다시 제안하여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플랜 추진과의 한사람인 일리노이 의사회 차기회장인 존 슈나이더 박사는 말하기를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장기기증 증가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재정적 도움을 주는 장려방법이 해가 될지 여부는 연구결과만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반대파는 말하기를 "자발적 기증으로 남을 돕겠다는 동기를 희석시키는 일은 잘못이다. 환자나 가족에게 장기기증 하겠느냐는 말 이상 물어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장기 매매는 무조건 비윤리적이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는 "이 방법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격이고, 부유층 자원자를 줄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은행은 이 "장려법 안 연구"를 찬성하며 "국민의 보다 많은 관심(장려 법에 의한)만이 장기기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고 발표했다. AMA의 관측에 의하면 근소한 표차로 이번에 실패한 "장기기증지불플랜" 연구가 내년엔 통과될 전망이다. 그렇게되는 날에는 AMA는 그의 관록 있는 의회로비 실력을 발휘하여 현

재의 "장기이식 법안"을 개정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장기 매매 금지조항"이 삭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장기기증자의 재산에 대해 1만 불의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II. 장기기증 부족은 생사에 관한 윤리문제

뇌사의 윤리문제를 두고 장기간 갈등 끝에 장기이식 법이 한국서 법제화되어 시행 된지가 2년도 채 못되며(2000년 2월) 일본서도 1997년 10월에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보게되었으니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미국에서는 1984년 의회에서 장기이식법안이 제정되었지만, 1968년 하버드보고서의 뇌사기준발표, 그리고 같은 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세계의사사회(WMA)의 뇌사지시선언(시드니 선언)이라 의학계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널리 수용해왔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장기은행과 AMA는 윤리적인 이유로 장기지불을 반대했으며, 법적으로도 장기매매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장기기증을 못 받아 죽어간 대기자가 작년만 해도 6천명이 넘는 현실의 사정은 전과 달라, 여기대한 윤리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게되었다.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기증을 대기중인 환자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어, 1980년대 후반에 15,000이 었으나 지금은 78,000명으로 급증했다.

AMA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장기이식을 요하는 환자수가 장기기증자수보다 4배나 많은 율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AMA는 이 문제를 연구하여 최선의 해

결책을 강구하여야만하며, 여기에 장기지불이 실현될 경우의 상황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용이한 신장이식의 예를 들자면 이식 대기기간이 10년 전에 평균 1년이었으나 현재 2년으로 늘어났고, 시급을 요하는 간 이식의 경우는 8배(1개월에서 8개월)나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보람도 없이 악화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기증 부족문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장 해결해야할 이슈이다. 장기이식에 대한 국가정책의 목적은 가급적 많은 생명을 구출한다는 오직 한가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기증자에 대한 혜택도 고려되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법적으로 혈액과 생식세포(정자 난자)의 상업적 매매는 허용하면서 왜 장기는 안 된다는 말인가?" 라고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III. 중구난방(衆口難防)의 Bioethics

기증자가 수요의 1/3도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논의는 장기이식의 "우선 순위"이며, 이러한 문제는 인공신장투석이 시작되던 1960년대에도 있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인공투석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부전환자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나? 라는 윤리적 논제를 두고 의사, 종교가, 철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여태까지는 의학 윤리에 관해서는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르기만 하면 됐으나, 1960년대는 각 분야 전문인이 의료윤리에 참여간섭 하게끔 바뀐역사적 전환기라고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생명윤리학(Bioethics)이 생겨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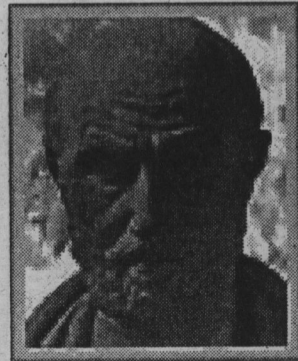
으며, 의료문제윤리학에 관한 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가 도래했다. 위스콘신대학 A교수(법학 및 윤리학) 말처럼 "생명윤리학자가 되기 위한 면허증이나 신임장이 필요 없으며, 아무나 자칭 생명윤리학자라고 주장할 수 있음"으로, 의료의 윤리적인 문제는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분야가 돼버렸다.

여담이지만 이 일은 마치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가부를 두고 비전문가들의 맹목적 발언을 상기케 한다. 언론계보도는 뉴스라는 시급성이 있음으로 잘못된 보도나 논설은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겠으나, 비(非)의학 분야의 전문인이나 종교지도자들이 글 한쪽 연구한 흔적 없이 자기를 목소리만 높이는 사태는 그야말로 백가쟁명하는 난맥상이라 실로 가관이었다.

대한의사회에서 지난 11월 15일 존엄사 허용견해를 발표했으니, 의사들이 사회계몽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쉬이 수용하리라 믿는다.

최근 인간복제의 윤리성논쟁이 심각하게 되어감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생명윤리담당 고문관을 두게되었고, 생체분야에 관여하는 회사도 Bioethics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생명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윤리문제라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으며, 이 고비를 넘어서야만 한다. AMA는 장기이식을 활성화시켜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고자 여기대한 윤리문제연구를 내세웠다. 윤리는 우리가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과제이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회피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선서

-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습니다.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습니다.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습니다.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부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여 여기겠습니다.
- 비록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습니다.
-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합니다.

老夫婦의 사랑

신장 기증자 찾습니다!



서울대 학교 미 중 서 부 지역 동 문화 창립회원이 시며 제 1 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이 날 까지 동문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기억(문리대 47년 졸)동문의 부인 천옥순여사께서 신장(콩팥)기증자를 찾습니다. 병환이 깊어서 하루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랍니다. 혈액형은 O형 RH+ 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전화 414-351-2298 이기억

돼지 이야기들

주한수 <수의대 66년 졸, 미네소타대 수의학 교수>

창세기 일장 부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시어 하늘나라에서 귀염둥이로 자라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돼지야 돼지야 너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부디 좋은 일하고 돌아오렴 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돼지를 불러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고 물으셨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인간들이 주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일렸거늘 하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큰칼을 내려치는 바람에 그렇게 긴 코를 갖으셨던 돼지 코가 싹둑 잘려서 납작 둥글 하게 지금 돼지 코 모양으로 남아있답니다.

이야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의 형체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식기를 만들어 하나씩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도 돼지는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맨 늦게 오는 바람에 마지막 남은 싹둑 작품을 달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돼지 것은 뺨뺨뺨 꼬볼꼬볼 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 때 상위에 삼은 돼지 머리를 빠지지 않고 올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사상 위의 돼지 머리는 죽어도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얼굴을 보여 줌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빌어 준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먹는 잔치 음식 중에 가장 알려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사 상 돼지 머리를 잘라 막걸리 사발을 돌리면서 새우젓에 찍어 먹는 맛이랍니다. 돼지 머리, 편육, 돼지 순대 어디 맛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쨌든 돼지는 살아서 못다한 일을 죽어서 통째

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돼지는 어는 동물보다 오래 전부터 인간들과 살아왔다고 합니다. 중국 계림 땅에 약 1만년 전에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는데 여기에 돼지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적어도 약 2천년 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국 삼국지에 부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돼지기름을 몸에 바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신통력을 가진 동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전에 "뚫을산" 오즈음은 도드람산이라고 불리 우는 산이 있는데 옛 전설에 한 효자가 어머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초를 뜯기 위해 밭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데 난데없이 멧돼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그 울음소리가 나는 데로 올라 와보니 돼지는 없고 자기가 매달려 있는 밭줄이 바위에 스치어 끊어지기 직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돼지소리 때문에 밭줄 끊어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어 목숨도 구하고 약초도 구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산은 돼지 울음 때문에 효자를 살린 산이라는 뜻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국사기에 고구려 유리왕 시절에 하늘에 제물로 바칠 돼지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돼지를 쫓아 찾은 장소가 땅이 비옥하고 물고기가 많아서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왕건의 조부는 돼지의 안내로 개성 송악산 아래에 집을 짓고 왕건이 출생하고 도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도 많겠지만 돼지에 관해서는 길조를



나타내고 돈, 재산이나 복을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돼지 저금통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것은 동서양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돼지는 부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iggy Bank라는 말부터 부를 연결시키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인 뉴욕의 금융가 Wall Street도 옛날에 하도 돼지가 옥수수 밭을 망가뜨려서 세운 담벼락 이었던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왕성하게 살았던 곳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도 돼지를 사업과 관계시켜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도야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되야지"와 비슷하여 시작은 물론 앞으로 일이 계속 잘 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돼지의 한자말 豚은 우리 나라 말 "돈"과 발음이 같습니다. 일이 잘 되어 돼지가 많은 돼지 새끼 낳듯 사업이 번창하여 돈을 벌기를 바라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윗놀이의 "도"는 돼지에서 유래되었으며 시작을 의미하는 첫 "도"는 살림 밑천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부터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꿀꿀이"라고 하며 이 말에서 꿀로 이어지고 틈만 있으면 돼지

와 같이 꿀맛 같은 단 잠을 자면서 좋은 꿈만 꾸길 바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꿈에 돼지를 보면 길조로 간주하고 돼지꿈은 용꿈과 함께 좋은 일을 예견케 합니다. 꿈 해몽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돼지꿈을 소개합니다.

* 돼지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꿈 - 재물이 따른다.

* 자기가 돼지가 되어 네발로 걷는 꿈 - 많은 재물을 얻는다.

* 큰 돼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기 뒤를 따르는 꿈 - 재산가의 도움을 받는다.

* 한 마리의 돼지가 여러 마리의 돼지로 변하여 우리가 딱 차거나 자기 뒤를 따르는 꿈 -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 남의 집의 돼지가 와서 자기 집돼지와 교미를 하거나 여러 마리 돼지와 다 교미하는 꿈 - 남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많은 축의금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 돼지가 자기 치마를 물고 흔드는 꿈 - 부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 임신부가 돼지를 헤치려는 법을 때려죽이는 꿈 - 어려움 없이 태아를 출산한다.

돼지고기는 비계를 빼고 나면 콜레스테롤이 낮은 생선 못지 않은 건강식품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방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데 알고 보니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돼지

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인(P)의 성분이 많아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어린이의 성장에나 갱년기의 여자들에게 좋습니다. 뼈의 주성분이 칼슘과 인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돼지는 4-5년 되면 쓸모가 없어 도축하지만 최고 27살까지 살았던 기록이 있다. 그중 Super 돼지는 최고 1,160Kg 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돼지는 한꺼번에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지만 최고 기록은 34마리까지 낳았답니다. 돼지의 최장거리 수영기록은 30Km이었고 숫돼지 한 마리가 가장 많은 암 돼지를 상대한 두수는 24시간 동안 25두였답니다. 현대 과학 및 의학은 돼지를 쓸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이용하여 40여종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고 췌장, 피부, 심장판막 등을 이용하여 수많은 당뇨병, 화상을 입은 환자, 심장판막 질환 환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 공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돼지에 주입함으로써 인간의 신체가 거부하지 않는 돼지의 심장, 콩팥, 간 등의 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용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는 날 분명 돼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코를 되돌려 받으리라 믿어 집니다.



제4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및 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시상부문에 따라 제 4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상부문

- 참여성:**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 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 1) 접수마감 : 2002년 1월 31일
 - 2)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 팩스 : 703-0755)
4. 시상시기 :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 (2002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金在淳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根

SNUA OPINION LEADER

「나노」과학기술이 과학혁명 예고한다

지난 8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劉龍교수가 선정됐다. 劉교수는 나노 백금촉매 등 극미세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다공성 실리카 물질」을 합성해 그 결정구조까지 규명, 국내 나노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劉교수로부터 나노기술을 통해 어떤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최근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자주 거론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IT, BT, ET 그리고 NT이다. 여기서 NT는 nanotechnology의 약자로서 나노과학 기술을 일컫는다. 그럼 NT가 어떤 분야이기에 이처럼 각광받는 것일까?

「나노」란 원래 10억분의 1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서 시간의 길이와 공간의 크기에 공히 적용되는 표현이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말하는 나노기술에서는 공간의 크기에 한정된다. 현재 반도체를 비롯한 미세소자의 제조기술 한계는 대략 직경 0.1 마이크로(1 마이크로는 1백만분의 1 m) 정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1백분의 1 정도의 크기인 나노미터 크기의 소재를 다룰 수 있는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메모리 소자나 컴퓨터 칩 및 극미세 기계 부품을 만들 수 있다면 현재보다 기억용량과 연산속도가 훨씬 더 큰 컴퓨터와 생체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극미세 로봇의 개발 등 공학 분야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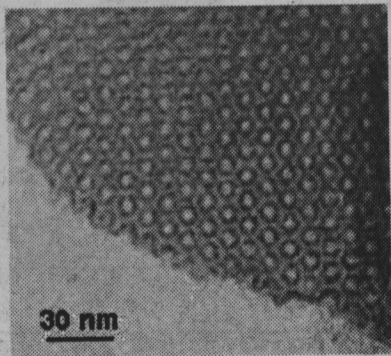
생체 탐사로봇 개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노기술은 당장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다. 물질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물질 내부의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같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시적 크기의 물질에 비하여 색깔과 전기전도성, 촉매반응 활성 및 자기적 특성이 달라지거나 응용점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속 철사를 나노 크기로 아주 가늘게 만들면 응용점이 낮아져서 조금만 가열해도 녹아 내리는 등 제조와 사용 시에 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반도체로 쓰이던 물질도 전기전도성이 크게 변하여 소자로 작동시킬 때 예기치 못했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나노물질은 거시 세계의 물질에 비하여 특이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나타나므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뮴과 셀레늄으로 구성된 물질을 적절한 나노 크기로 만들면 푸른색에서 붉은 색까지의 무지개 색깔 중에서 원하는 색깔로 선택 제조할 수 있으므로 발광소자로 쓸 수 있다. 또한 금속입자를 나노 크기로 아주 작게 만들면 기존의 물질보다 화학

반응을 훨씬 더 선택적으로 일으키거나 더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 물질을 제조할 수도 있다. 산화티타늄으로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시키면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물을 광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값싸게 제조하는 광촉매 기술의 혁신을 이룩하는 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의 경우에서처럼 나노기술은 단지 더 작게 만든다는 극미세화의 개념보다 나노 크기의 물질을 합성하거나 조립하고 물리화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과학기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상과학소설에서처럼 우리 몸 속을 누비며 암세포 등과 싸울 수 있는 나노로봇, 미래형 나노 슈퍼컴퓨터 등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세대 이상의 연구노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대단한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그것보다 현재 실용화에 훨씬 더 가까운 나노과학 기술 분야는 아마도 전통적 기술에다 나노물질의 특이성을 접목하여 전통적 기술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고성능 촉매와 자기저장매체, 센서, 의약품전달 나노캡슐 등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화학자들이 분자나 원자를 여러 개씩 조합하여 나노 크기의 신물질을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노물질들 중에서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 본인의 연구실에서도 작년도에 네이처誌에 나노다공성 실리카 물질의 결정구조 연구에 관한 커버스토리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 나노파이프를 규칙적으로 배열시킨 새로운 탄소 나노물질(그림)을 합성하여 금년 7월 12일자 네이처誌에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기고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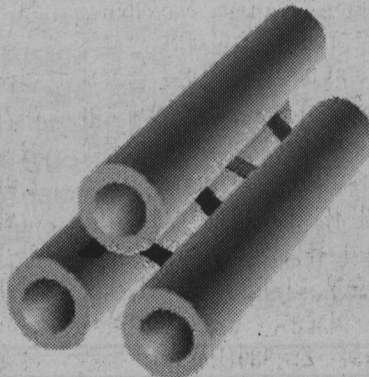



탄소 나노파이프의 전자현미경 사진(左)과 모형.

이 나노파이프 신물질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의 다공성 탄소에 비하여 아주 작은 백금 나노입자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고성능 화학반응 촉매로 활용하거나 이러한 백금-탄소 나노물질을 촉매로 이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쓰는 고성능 연료전지의 개발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노기술은 극미세세계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전하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노물질 또는 나노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자와 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몇 개씩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조합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배열시키는 등의 조작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이 나노크기로 작아지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나노입자들끼리 서로 결합하여 뭉쳐버리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들어 원자와 분자를 조합하여 글씨 모양으로 나타내는 등의 나노조작기술이 발표된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이러한 기술이 야말로 예술과 같은 수준의 나노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씨를 몇 개 쓰는 정도의 기술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나노글씨 또는 나노인쇄를 신속하면서도 무수히 복제할 수 있는 기술 없이는 실용화가 어렵다. 또 나노물질 제조기술이 개발된다 하여도 이러한 나노물질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나노물질 내부의 특정 부위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노기술은 분자나 나노소자에 전자를 하나씩 조작하여 작동하는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컴퓨터 등을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뇌의 작동원리처럼 학습에 의해서 분자나 나노소자를 자발적으로 동작시키는 신경망 컴퓨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노 로봇이나 나노 슈퍼컴퓨터 등은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실현하기까지가 상당히 먼 기술인 것 같다. 그러나 전통적 기술에다 나노물질의 특이성을 접목해 전통적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성능 촉매와 자기저장매체, 센서, 의약품전달 나노캡슐 등을 개발하는 분야는 10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미래의 사회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노다공성 물질의 나노 공간 속에서 촉매 반응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劉 龍

- 1977년 모교 공대 공업화학과 졸업
- 1979년 한국과학기술원 졸업
- 美 스텐포드대 졸업 (박사학위)
- 美 U.C. 버클리에 졸업 (박사학위)
- 1985~1986년 美 U.C. 버클리에 연구원
- 대한화학회·한국화학공학회·한국공업화학회 종신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 기능성 나노물질 연구단 단장

론, 나노분야 중에서도 투자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과제들만을 선택해 중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분야를 선별하지 말고 나노학문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나타내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줌으로써 미래의 나노과학 기술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나노과학 기술은 현재 대부분이 발아단계에 있는 미래원천기술이기 때문이다.

우수 과학자 지원이 선행돼야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내 나노기술 역시 다른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이것저것 새로운 나노물질을 합성하거나 선진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약간씩 변형 또는 답습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기능성을 발견하여 응용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미 네이처誌와 같은 권위 있는 학술잡지에서도 단순히 새로운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연구결과보다는 나노물질 특유의 새로운 기능성을 발견하는 연구결과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성을 발견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나노소자나 장치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나노입자, 나노선, 나노다공성 물질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새로운 특성을 찾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는 국내에서도 화학, 화학공학,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새로운 나노물질의 합성과 새로운 제조기술 및 새로운 응용성을 개척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나노과학 기술의 최근의 발전현황과 전망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언급해 보았다. 나노과학 기술은 이제 막 탐사에 들어선 새로운 분야이다.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계속하여 넘어왔다. 나노과학 기술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과학혁명을 일으키리라 예견해본다.

SNUA OPINION LEADER

한국의 암 치료 현황과 전망

지난 84년부터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병원인 미국 텍사스의대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수로서 폐암 관련 논문만 국제학술지에 1백50여 편을 실을 정도로 폐암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는 **李振洙** 동문. 그에게서 우리나라 암 치료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보았다.

암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암은 전체 사망원인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으며, 암은 곧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 때문에 일단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환자 자신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과 간병하는 가족들의 노동력 상실 및 치료비 부담에 따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도 막대한 수치를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십 수년 동안에 걸쳐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와 구토 등 항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을 없애는 약제의 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전체 암환자의 50%가 완치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국립암센터가 지난 6월 20일 개원되어 암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된 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 암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식생활 서구화로 암 발생유형 변화

암의 발생기전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암은 정상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세포증식 및 분화에 작용하는 정상적인 통제기능의 제어를 받지 않고 증식하는 세포들로 인하여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주요 원인으로는 발암물질과 감염 바이러스나 Papiloma같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초래된 암유전자(oncogene) 및 암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구조상 기능상의 변화가 폐암을 위시한 각종 암과, 간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발암 물질이나 자외선에 의해 생긴 DNA손상을 교정하는 유전자의 기능 장애와 APC 유전자 및 BRCA1,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일부 대장암과 유방암, 난소암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의 감염이 위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의 자연적 증가와 흡연

등을 통한 발암물질에의 인위적 노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지방 저섬유질 식이 전환이 현재 우리 나라 암 발생 유형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반면 폐암과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나라 남자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985년도의 40.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9년도의 30.3명과 비교할 때 25% 이상 감소한 반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동 기간동안에 12.0명에서 31.7명으로 164% 증가하였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2.7명에서 8.5명으로 215% 증가하였다.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도의 35.4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도의 사망률이 32.8명으로써 남자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로 퇴치 가능

암에 관한 근본적 연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미국에서는 암에 관한 연구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그 연구결과를 환자 치료에 직접 연계시키기 위하여 1971년도에 「National Cancer Act」를 제정 공포하고 막대한 연구자금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암 전문 치료 인력을 길러 냈을 뿐만 아니라 암 전문 치료 센터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전문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동시에 이미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Taxol, Taxotere, Gemzar, Navelbine, Irinotecan 등의 화학 요법제와 요즈음 기적의 항암제라고 각광을 받는 글리벡 등이 개발되었으며 앞으로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특히 anti-HER2/neu 면역 항체인 Herceptin은 이미 유방암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신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EGFR작용을 억제하는 C225 면역항체 (Cetuximab)와 ZD1839(Iressa) 등은 대장암, 폐암, 두경부암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더불어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항구토제 및 조절 촉진인자, 그리고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은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은 암 퇴치까지도 가능케 하리라고 전망된다.

임상연구비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

이러한 획기적인 암 치료제 개발과 암

으로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의료외적 요인에 의하여 많은 제약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의 건강 보험 수가 체제 내에서는 새로 개발된 고가의 치료제나 개발 중에 있는 약을 이용한 임상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로 개발된 신약을 사용할 때 오는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 수가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차약, 이차약 등으로 구분된 치료허용 범위의 확립적 적용은 새로운 치료 방식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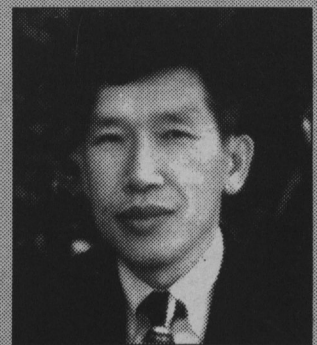
외국에서 시행된 치료방식만 그대로 답습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겠는가? 국립암센터와 같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준하는 임상치료 연구에 필요한 고가약과 개발 중에 있는 신약의 구입 및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주는 임상연구비 지원체계의 수립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문 의료인력의 결여이다. 과거에 좋은 치료 약제가 없었을 때에는 모든 암 조직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만이 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병원의 개원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도입되어 증상 완화는 물론 수술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제는 새로이 개발된 항암제와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통하여 개발된 면역항체, 성장 신호 전달체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약제들을 이용하여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암 치료는 특별히 훈련받은 암 전문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환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어떤 질병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인식되어질 경우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민간요법과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비방들이 떠들게 마련이다. 많은 암환자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적어도 뽕이 되지 않는지 않는나」는 논리로 이른바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보약, 면역항진제, 항산화제 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한 환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약사 빠른 상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원에 가고 산 속 암자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일이 아니지만, 모든 항암치료를 중단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약해진 환자들을 현혹하는 과대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李 振 洙

- 74년 모교 의대 졸업
- 76년 보건대학원 졸업
- 미국 텍사스의대 MD앤더슨 병원 흉부종양내과 교수
- 국립 암센터 병원장

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암도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만성병이라는 사실이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병도 아니다.

하나의 암세포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직경 1cm 정도의 크기까지 자라려면 그 암세포가 하나도 죽지 않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0년의 세포 분열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수개월 내지 수년 이상 암이 몸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지만, 암은 오히려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유일한 만성병이다. 비록 완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죽음이 라는 불치의 병을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 가면서도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치료받는 이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구가할 수 있다.

한가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완치해야만 된다는 일념 때문에 암에 좋다는 비방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다 보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는 비방들이 대중 매체에 범람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오직 암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해를 줄이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4면에 계속>

서울 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or.kr>

吳桂淑 <미대 63년 졸> 동문 작품전

"Stories From the Garden"

<편집자 註> : 吳 동문의 전시회는 Heartland지역 미술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아래 글은 吳 동문의 전시회를 보도한 기사들(The Kansas City Star紙의 Kate Hackman의 "The Artist in Bloom, Ke-Sook Lee has an affinity for the garden in mixed-media exhibit", Pitch Weekly紙(Sep. 20-26, 2001)의 Debra Di Blasi의 "Refuge, Ke-sook Lee's Garden offers a moment of Silence" 및 Christopher Leitch의 "What a wonderful life it is" 등)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많은 전시회 관계 자료를 보내 주신 吳 화백께 감사드립니다. >



Flowers), 행주(In her Garden) 등 40여 점이 전시되었다.

Debra Di Blasi는 9.11 사태 이후 불안한 시국에, 오동문의 전

시장은 편안한 안식처 (Refuge)가 되었으며, 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image와 색상은 평화와 사랑 등 아름다운 삶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표면상으론 간단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동문의 작품은 여성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하나, 큰 소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Stories from the Garden" 이란 전시회 표제처럼 조용한 목소리이지만 하나의 꽃송이가 향기를 내며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Kate Hackman은 평했다.

吳동문은, 내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Galerie Lefor-Openo에서 Agnes Baillon (Ceramic Sculptor)과 공동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기의 가사(家事)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자들의 미의식(Aesthetic)은 아직 동서 미술사에는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에 힘든 점도 있으나, 그런 점에서 더욱 이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소재에 도전하고 싶다고 예술가로서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1988년부터 하트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正體性(Identity)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작품활동을 해온 오계숙(미대 59년 입) 동문이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캔사스시 Dolphin 화랑에서 개인전 ("Stories from the Garden") 가졌다. 吳동문의 전시회는 Heartland 지역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吳동문은 1999년 캔사스시에서 우수한 예술가에게 주는 "Charlotte Street Fund" 지원금을 받았고, 1988-90년 Kansas Art Institute에서 혼합재료를 사용하는 미술을 가르쳤다. 또 1999년엔 Dallas Women's Caucus Art에서 개인전 상을 받았는데, 동 전시회의 작품들은 한국인, 미국인, 아내, 어머니, 여인 그리고 화가로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특징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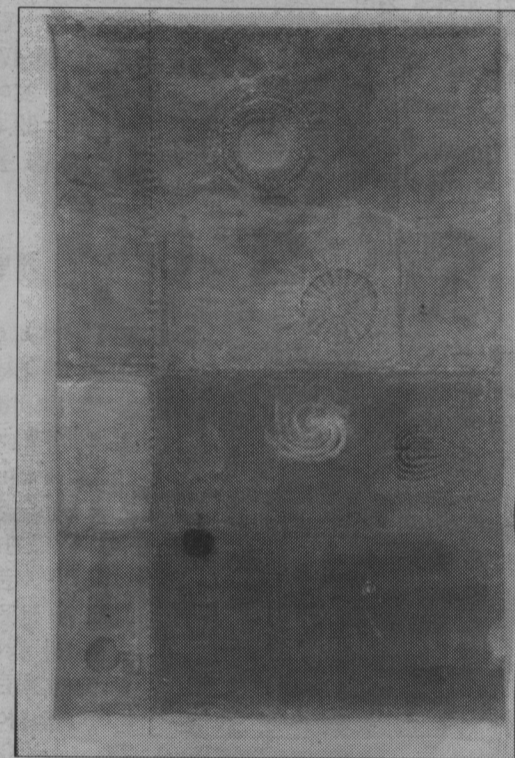
작년 10월엔 Philadelphia 근교의 Rosemont 여자대학에서 전시했던 훗이불 이야기, 행주 이야기, 벚꽃보 이야기 등에는, 자신을 작품을 옛 여인들이 가정에서 수놓아 만든 가사용품(Household Item)에다 꼬매 부쳐 전시했다. 이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Craft Art)을 순수한 예술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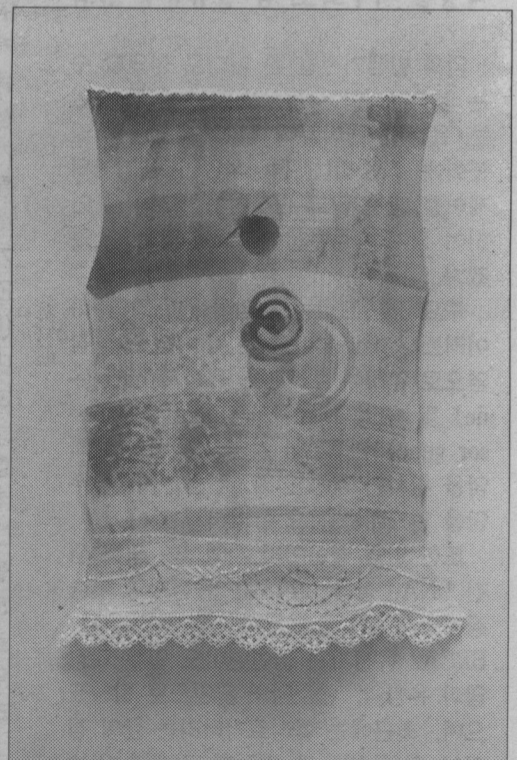
吳동문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할머니한테서 배운 바느질 솜씨를 보여, 혼합재료 작품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나의 언어로 사용했다. 옛 여인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으나, 오 동문의 할머니처럼, 바느질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각과 창작력을 표현하셨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담요(Earth Blanket), 손수건(Dye my hands), 수건(Garden



Hand Towel : Dye my hands #15, 2001, 15" x 10" Clay, handmade paper & mixed media



Pillow Case : Learning to stand all by herself 2001, 37" x 23" Clay, rice paper, thread, cotton, tarlatan & mixed pigment



Hand Towel : Garden Flowers #2 2001, 24" x 15" Clay, cotton, thread & mixed pigment



전시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좌로부터 Mrs. 오인석, 아들 John, 오 화백과 부군 이교락동문, 오인석동문, Mrs. 배(오명순 동문)와 부군 배규영 동문).

워싱턴주 소식

워싱턴주 동창회 송년 파티

차기회장 허유행 동문(사대 57입)선출

지난 12월 1일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 동창회는 워싱턴주 주립 대학의 교수회관에서 Lake Washington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명멸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 파티를 가졌다.

사상최대의 참석자를 불러모은 이날 모임은 9.11 테러의 악몽을 뒤로하고 2천1년을 성대히 마감하는 황수택 회장(의대 65입)과 이

혜숙 총무(문리대 64입)의 간곡한 권유의 결실이었다. 올해의 동창회는 특히 워싱턴주 최초의 여성 총무와 부부 임원(회장과 총무)의 등장으로 활기찬 한해였다.

양용관 전임회장(수의대 62입)의 사회로 이어진 제40회 정기총회는 허유행 부회장(사대 57입)을 회장으로 후보위원 고희선(법대 64입)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이어진 2부 순서는 김강식 동문(보건대학원 78입)의 재치 있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워싱턴대학 교수회관에서 화기애애하게 답소하는 동문들

는 사회로 황수택 회장이 기증한 바이아그라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노래자랑과 특기자랑으로 열린 분위기를 더해갔다. 이날 송년회는 교수회관의 은은한 분위기 속에 울려 퍼지는 서울대 교가를 끝으로 밤늦게까지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는 동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2천2년 회장으로 선출된 허회장은 서울대의 긍지를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창회로 성장시킬 것을 다짐하며 같이 일할 임원으로 총무 이해숙, 문화 양용관, 재

무 권오성(경영대 86입), 홍보 맹병규(문리대 70입), 사업 차효주(사대 56입), 김봉오(법대 74입), 섭외 서마리아(음대 58입), 감사 황수택으로 진용을 가다듬었다. <투고자: 고희선동문>

휴스턴주 소식

이진수 동문, "올해를 빛낸 한국인" 상 수상

얼마 전 본국에 국립 암센터 병원장으로 임명되어 귀국한 이진수 동문(의대 68입, 사진)이 알리안츠 제일생명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를 빛낸 한국인 본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상은 알리안츠 제일 생명이 지난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한해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금년에는 대상에 대한민국 119 구조대가, 본상에는 인진수 동문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진수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실력으로 열

심히 일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진수 동문은 귀국 전 휴스턴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20년간 폐암 전문가로 활동해 왔었다. <투고자 변중무 동문>

남가주지역 소식

남가주 음대동문회 제 2회 자선음악회

수익금 \$5,400 한국 복지재단에 기탁

남가주 음대 동창회(회장 이순희)는 지난 9월 8일 L.A Down Town의 Colburn School Zipper Hall에서 박인옥 동문(음대 65년 입)이 지난해에 갖은 제 1회 한국 불우 아동 돕기 자선 음악회(Duo Piano Recital)에 이어, 제 2회 한국 불우 아동 돕기 자선 음악회(부제: 겨울나기 스웨터 보내기 캠페인)로 실내악 연주회를 열어 Haydn Piano Trio, Beethoven Piano Trio 및 Schubert Trout Quintet 등을 연주하였다.

지난해엔 수익금 \$2,300을 한국의 불우아동 안경 맞추기에 보냈고, 금년엔 \$5,400의 수익금을 추운 겨울을 지낼 스웨터를 사입하도록, 한국 불우 아동 남가주 후원회를 통해 한국 복지 재단으로 보냈다.

실내악 연주엔 중국 출신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Violin, Viola Double Bass를 연주해 주었



고, 박인옥 동문은 Piano Part를 맡아 연주했다.

<투고자 음대회장 이순희 동문>

9.11 참사에 관한 작문 경시대회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에서 학부모님들께 알리는 말씀!!

9.11 참사에 관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자제분들의 친구들의 소감을 담은 에세이 공모후 책자 발간하러 하오니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청소년들이 에세이 창작과정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과 위안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제 목 : Where were you on September 11, 2001 ?
- ▶ 분 량 : 8×11, 2 pages 이상
- ▶ 대 상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전민족)
- ▶ 마감일 : 2002년 3월 31일
- ▶ 시상일 : 2002년 5월 재단 제 9주년 창립일
- ▶ 상 금 : 1등 \$2,500 / 2등 \$1,500 / 3등 \$1,000
- ▶ 보내실곳 : Joon J. Bang, M.D. P.C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판권은 재단이 소유합니다.)

미주한인 청소년 재단 회장 방준재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

- 회 장 : 이순희
- 부 회 장 : 임선영, 박인옥
- 사무국장 : 임은희
- 재 무 : 백옥자 총 무 : 홍선재
- 이 사장 : 김광철
- 이 사 : 안옥자, 정낙영, 홍옥자, 김동석
김광은, 김옥자, 이수영, 이선웅, 윤길숙
- 고 문 : 권길상, 이우근, 김창무

뉴잉글랜드 소식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모금 행사 참여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홍혜 (Mrs. 이재신), 이재신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공대 57입), 이의인(공대 68입), 뒷줄 왼쪽부터 김동희(간호대 62입), 도운희 (농대 61입)

뉴잉글랜드지부 동창회는 3년째 아시아인 반가정폭력협회(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ATFADV)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못지 않게 많은 활동을 하였다. 협회의 연중 가장 큰 모금 행사인 「Silk Road Gala」에 도운희

(농대 61 입) 동문께서 Gala 준비 위원으로서 지난 4월부터 많은 봉사를 하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하도록 도와 주셨다. 이날 모금행사에 참여한 동문은 이재신(공대 57입) 회장과 부인 김홍혜, 도운희 (농대 61입), 이의인 (공대 68 입) 김동희 (간호대 62 입)이고, 시간 관계로 참석하

시지는 못하였지만 김기자 (문리 61), 신상철(공대, 74), 윤용훈(공대), 한병의 (문리대 60입) 동문들께서는 많은 기금을 보내 주셨다.

도운희 동문은 Vacation Home 사용권, 김동희 동문은 자기 향아리를 기부하였고, 특히 이재신 회장의 부인 김홍혜 (Elizabeth Lee)씨가 정성 들여 만든 근사한 작품으로 silk scarf, Cushions 그리고 silk painting frame 들은 많은 인기를 모았다.

그리하여 동창회에서 총 \$4,000 이상의 모금을 할 수 있어서, 반가정폭력협회에서 깊은 사의(謝意)와 찬사(讚辭)를 보내왔다.

ATFADV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아시아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로서 당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호소가 있으며, 24시간 아시안인이 모국어(母國語)로 이야기 할 수 있는 HOT LINE 이 있고, 개인비밀이 절대로 보장되는 개인면담, 영어교육, 법적인 문제 도움 및 취직을 위한 준비 등 여러

NE 지역 동창회 총회 및 신년 하례회

1월 26일 5시, Western Country Club

NE지역 동창회(회장 이재신)은 2002년도 정기 총회 및 신년, 구경 Dinner Party를 2002년 1월 26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Western Country Club(275 Meadowbrook Road, 전화 781-894-2503)에서 개최하니 많은 동문과 가족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날 행사로는 5시부터 Reception이 있으며 6시부터 만찬이 있고 연례총회가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있는데 동창회 사업보고 및 노인회 기여금 및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어 11시까지 송년 파티가 있을 예정인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Nonsense Quizzes, 즉석 사물놀이, 장기자랑 및 Dance Party가 있을 예정이다.

< 투고자 이재신 회장 >

가지를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변인이 되어 줄 수도 있다.

혹시 주위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617-338-2355로 연락주시고 ATFADV를 알고 '싶으면 Website www.ATASK.org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

또 봉사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김동희 (781-862-7740) 혹은 Welch8@hotmail.com) 동문에게 연락하면 된다.

(투고자 : 김동희 동문, 간호대 62 입)

하와이대 구해근 교수 '한국의 노동자들'출간

하와이 대학의 교수인 구해근 동문 (문리대 62년 입) 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



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정체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연구한 책, 한국의 노동자들(KOREAN WORKERS)'이 이달 코넬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됐다.

구교수는 "한국 노동자들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계급의식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공돌이, 공순이라 불리며 멸시받던 노동자들의 한이 응축,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책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복종적이던 한국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7, 80년대부터 반세계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자 문화와 산업화 과정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료는 노동자 수기, 노동자 인터뷰, 노보, 투쟁사례 등 한국 노동자들의 실제 경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오는 28일 정오 하와이대에서 "세계화시대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장소는 사회과학빌딩 7층 컨퍼런스룸.

(중앙일보 12-4-01자 전제)

필라지역 소식

필라지부 송년총회

60여명의 동문 가족 우애 다져

필라지부 동창회(회장 강영배 수의대 63졸)의 2001년도 총회 및 송년 파티가 12월 1일 필라 근교의 LaiLai Garden에서 60여 회원과 가족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 1부 순서에서 교가제창에 이어 강영배 회장의 인사와 임원소개가 있었다.

각 Table을 돌아가며 회원 자기 소개후 지난 회기때 수고하신 한혜원(의대 61졸)회장과 정규병(공대 82졸)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전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패를 표했다. 동문회 발전을 위한 시간에는 별 내용 없이 마쳤다.

제 2부 파티순서의 진행을 맡은 예체능 및 춤에 능한 민홍식(수의대 64졸) 동문은 Mike Kim의 밴

드와 함께 시종일관 온 회원을 흥겹게 리드해 나갔다.

우선 식후 소화제 역에는 Joke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방면에 있어 달인(達人)이신 정정수(의대 62졸)동문은, 이 지역의 차기 의사 회장(醫師會長)으로 피선되어 공사간에 위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서도,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금년의 그의 화두는 멘소리다마(Menthol Cream)였는데 신체 어느 부위에서 여름철 냉방기와 같이 시원히 약효를 내는지에 대하여 현장에 참석 못하신 동문들은 그 화답이 궁금하실 것이다.

각 회원들의 노래와 춤 솜씨는 어느 지부보다 낫다고 자부하는바

이 날도 참석 동문들은 유감없이 장기를 발휘하였다. 중간중간에 경품을 추첨하였는데, 최다의 당첨자는 최유섭(약대 72졸)동문이었고, 최고의 상품은 윤경숙(문리 63졸)동문이 차지하였다.

기억에 남을 몇 가지가 있다. 6대 회장 임광상(공대 53입) 동문께 민홍식 진행의 특별 배려로 최유섭 동문으로 하여금 Pfizer의 명약 정력제를 선물하게 하였고, 시종일관 Dance Hall을 지키신 현재원(공대 64졸)동문께 강영배 회장의 특상이 있었다.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유학생 동문들의 참석은 성공시키지 못하였는데, 최연소 의대 출신의 김정훈 동문이 김용식(약대 70졸)동문의 수고로 참석하였는데, 이날도 한수웅(의대 61졸)동문의 헌신적인 배려는 후배사랑의 본보기였다. 총회 전날 밤늦게 참석부탁전화에 다른 모임을 제쳐놓고 참석한 김세경(미대)동문, 윤경숙(문리대 63졸), 김정수(상대 53입)부부 동문, 특히 친구 아들인 정규병(공대 52졸)동문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여 답수하는 김정수 동문이 보기에 좋았다.

수의대 대표 김현영(62졸)동문

은 한 명이라도 빠질까봐 다시 우편연락으로 8명의 동문을 참석시켰다. 이 지역에서 이사하였거나 타계하였거나 야간운전이 힘든 분을 제외하고 9대부터 15대까지의 전임회장님(오진석, 정학량, 제갈은, 김용국, 최현태, 정덕준 및 한혜원 전임회장)들중 한 명만 참석 못하고 전원 참석하여 동문들을 격려해주셨다.

필라지역의 큰 행사였던 서재필 박사 50주기 기념사업행사가 이날에 겹쳐 많은 동문들이 그곳에 참석하였는데도, 정학량(약대 60졸) 10대회장은 그 모임의 중책을 맡았는데도 밤늦게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창회에서 꼭 베푸는 정정수(의대 62)동문의 동문사랑은 모범이 되는데, 어느 단체 모임 보다 많은 회원의 참석을 위하여 노력한다. 필라 동창회 송년모임이 다른 모임보다 서울대인의 수준에 맞고 유익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이 되게 해야하는데, 이번 총회가 동문들의 기대에 비하여 주최측이 부족하고 미비하지 않았는지 두렵다.

필라추추 만세!

< 투고자 주기목총무 >

워싱턴DC 소식

제 22회 정기 이사회 개최

11월 8일 오후 7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우래옥에서 4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회장 陳今燮)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1부 식사에 이어 2부에서는 이날의 초청연사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삼욱 동문(문리대 72년

졸)의 "워싱턴 주변 지역의 신경제와 지역 발전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 차동문은 워싱턴 지역과 서부 실리콘 밸리를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차교수는 향후의 전망으로 한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축 및 정보교환, 벤처 회사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3부 의안 심의에서는 회칙 일부 개정 및 조수미 독창회수익금 관리 위원회 안을 상정, 오인환동문(문 63입)의 제안 설명 및 진금섭 회장(약대 57입)의 보충 설명에 대부분의 이사들이 찬성을 표시하였으며 정시 통과는 12월 29일 연말 파티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 총동창회 정관개정위원회 워싱턴 DC 지역 위원으로 진금섭 워싱턴 DC지역 동창회장이 선임되었다.

2001년 송년 파티 및 임시 총회 개최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내 모두 균안(均安)하시지요? 어느덧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를 바라며 금년 연말 파티 및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들이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는 즐거운 파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9일 (토) 오후 6시

장소 : International C.C. 13200 LeeJackson Hwy Fairfax, VA 22033 (703) 968-7990

회비 : \$70/ 1인당 (\$40: 자녀, 방문 동문, 유학생)

식순 : 1부 : 임시 총회, 안건-회칙 개정의 건, 2부 : 연말 파티 2001년 12월 7일

워싱턴 DC 동창회장 陳今燮 배상



조수미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며

동문여러분,

지난 3월 3일 예정되었던 음악회가 조수미양의 건강상 이유로 거의 5개월여 연기되어 오늘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주의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와 처서가 지난 걸 보면 어느덧 그 무더웠던 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바라보는 늦여름, 아름다움과 설렘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또한 연인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음력)7월 7석입니다. 꿈과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란한 별중에 별인 소프라노 조수미양의 음악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수미양은 우리들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서구 음악인들을 매혹시키며 최상을 찬사로 수식되는 그녀의 정상의 성악가로서의 재능과 예술성을 떠나 사실 우리는 저마다 남모르게 느껴오는 그녀를 향한 흠모의 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세계인을 향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현대 문화와 예술의 주류 속에 우리의 독특한 존재의 가능성과 한국적 정서의 순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알려준 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고국을 떠나 냉혹한 현실과 고독을 극복하며 그녀가 이루어온 성공의 뒤편길에서 우



리는 그녀가 보여준 또 다른 초인적인 노력과 인내의 정신을 눈여겨 봅니다. 모국을 사랑하고 추억하는 그녀의 노래와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조수미양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국을 그리는 마음과 함께 인생의 고뇌와 기쁨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이 지역 동포사회의 문화수준을 고양시키며, 미 주류사회에 한인의 높은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획기적인 의욕을 갖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음악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문, 임원, 준비위원님들, 동창회원,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추미한국 대사관, 조지메이슨 대학, 신문, 방송사관계자 여러분과 Program 제작을 위해 후원을 해주신 업체 대표들의 협조와 격려에 각별한 경의를 드리는 바이며, 다시한번 조수미양과 관객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1. 8. 25 워싱턴지역 조수미 초청음악회 준비위원장 文成吉

祝 發展

서울대학교 및 재미 총동창회

소프라노 조수미 초청음악회 준비위원회

고문 : 방은호, 박윤수
이명숙, 안용구
백 순, 한의생
이내원

위원장 : 문성길
수석부위원장 : 진금섭
부위원장 : 정우순, 홍성호
오인환, 권철수
양춘희

총무 : 송상희, 재무 : 심계식, 간사 : 김국

준비위원 : 강길종, 강순임, 국정련, 김병선, 김병오
김진홍, 김태주, 남명호, 도상철, 박기종
박명영, 박상근, 박수용, 박용걸, 박평일
변종서, 배민자, 심계식, 오광동, 오선웅
이건형, 이병광, 이선택, 이영목, 이윤주
이정균, 이한봉, 이호균, 임종식, 유영준
유정식, 정요섭, 정홍택, 조길현, 조영주
조인욱, 조혜선, 최규용, 최경순



온타리오지역 소식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동창회에서는 회보 제2호를 발간하였다. 동문소식을 여기에 초록한다>

제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제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6:00부터 배기옥 동문(약대 56)집에서 있었다.

<동창회 소식>

야유회 (7월 7일)

견우 직녀가 일년에 한번 만나는 날이어서 오후 한 때 비가 내렸지만 10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작년과 같은 ROSSLORD PARK에 모여 동창회에서 준비한 갈비, 피자, 맥주와 약대 동문들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 밥, 음료수, 과일, 떡 등을 먹고 나서 보물찾기 물풍선 던지기 등 각종 GAME으로 하루를 즐겼다.

“쌍둥이 떡”집 (이건길, 문리대 60 동문 운영)에서 맛있는 떡 한 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신문 광고를 보고 나온 새 동문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동창회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골프대회 (9월 1일)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인 지난 9월 1일 (토) Annandale Golf Club에서 열린 골프대회에는 35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는데, 여성동문이 9명 참석하여 여성 골퍼들의 증가를 보였다. “바로 군빵”과 물로 점심을 대신한 동문들은 club house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뷔페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상식에 이어 door prize와 기념품을 추첨하였다. 이날 본부 동창회장 김재순 트로피는 gross champion을 한 김현수(문리대 58) 동문이 차지했다. 골프대회는 참가 동문의 회비로 운영을 하여야 함으로 금년에는 경비를 최대한 줄여 \$422의 흑자를 보아 동창회 기금으로 저축하였다.

참가하여 주신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골프대회 점수를 계산하여 주신 미대 김효 동문과 공대 신경순 동문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gross champion 김현수 (문리대 58)

남 net champion 신경순 (공대 57)

여 net champion 이영희 (간호대 61)

남 longest 이성호 (공대 72)

여 longest Mrs. 한상훈 (공대, 52)

남 nearest 여문석 (문리대 63)

여 nearest 배기옥 (약대 56)

<단과 대학 소식>

◇법과 대학

1. 박찬웅(법학 47년) 동문은 황장엽씨의 자유를 위한 모임의 대표로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김봉수 (법학 70년) 동문은 한인 장학회 장학생(2001-2002년도) 선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9월말까지 발표예정이다. “캐나다 국악원”, 후원회 일, “회원증가” 및 국악원 건물 임차등으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심있는 동문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3. 손영국(81입학) 동문은 토론토로 이민와서 “이민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소 : 144 Finch Ave. E., North York, Ontario 전화 : (416) 630-5759

◇공대 소식

1. 공대 동문 단합을 위한 특별모임이 8월 11일(토) 한상훈(화공 52년) 동문택에서 있었다. 40여명이 모인 이날 모임은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적극 참석하여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으며 바비큐 파티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 최정웅 (광산 60년) 첫째딸

결혼식을 지난 9월 2일 하였다. 축하합니다.

3. 한경섭(토목 48)동문은 정년 퇴직 후 토론토 대학에서 역사공부를 하시면서 “91년에 고향(함흥) 다녀온 이야기”를 15장의 논문(?)으로 발표하시고 최근에는 “캐나다 선교사 한국 이야기”를 발표하셨다.

4. 오현표 (전기 48) 동문이 금년 여름 세상을 떠나셨다. 골프를 무척 좋아하신 동문이 가신 곳은 분명히 그보다 더 좋은 곳이라 믿는다.

◇음대소식

1. 김승순(성악 53) 동문은 최근 예뻐합창단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왔다. 30년전 동문이 창당한 합창단을 다시 한번 지휘한 감격은 눈물겨웠다고 한다.

2. 송경란(성악 67) 동문은 최근 26년간 다니던 토론토 Hydro를 조기 정년 퇴직하였다. 많은 시간을 동창회 발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대 소식

1. 손정숙(가정 55) 동문(London 거주)은 최근 시집을 발간했다.

◇상대 소식

정규환(상경 45) 동문이 지난 8월 세상을 떠나셨다.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약대 소식

1. 정재훈(약학 93) 동문은 Intern 1년을 마치고 점점 까다로워지는 온타리오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Markville Walmat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축하합니다.

2. 경미선 (약학 84), 김부환 (약학 78), 김영준(약학 78) 동문들은 온타리오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 Internship을 하고 있다.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3. 장동엽(약학 53) 동문은 London 으로 골프광들을 초청하여 하루를 즐겼다.

◇미대 소식

1. 한기옥(조각 62), 박영주(회

운영위원장 인사

보기 드물게 더웠던 여름 날씨도 잠시뿐이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그 동안 동창회를 위해 회비와 잔조금을 보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보다 적은 수의 동문들이 “동창회 기금 모금” 운동에 참여하셨지만 여러 동문들 중에서 특히 선배님들이 회비와 잔조금을 보내 주셔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동창회 기금은 수의대에서 넘겨준 \$3,330에서 \$5,792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에는 골프대회에서 흑자 \$422 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신년파티 예약금 \$500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약금은 신년파티 후에 동창회 기금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보고* 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도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계속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는 해에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일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남은 금년도 동창회 행사 “신년 파티”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겨울도 동문들의 각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온타리오지역 서울대 동창회 운영위원장 이이병



신년파티

일시 : 2002년 1월 26일 (토) 오후 6:00

장소 : La Contessa Ballroom

69 Milvan Drive, North York, Ontario

☎(416) 749-5531

회비 : \$45.00/P Dinner with wine (2btl/tbl)

Cash bar, 많은 상품, music & dance

신년 파티 ticket은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 또는 서울대 동창회 임원에게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참가인원을 예약하여야 함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57), 장연탁(조각, 60), 최국강 (응미 62) 동문들은 Neilson Park Creative Centre Gallery 에서 제10회 한인미술협회전에 참가하였다. 축하합니다.

2. 김효(응미 58) 동문의 딸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농대 소식

1. 2001년 7월 1일 야유회겸 총회를 Downsview Dell Park에서

회원 23명과 가족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2. 호원균 (농화, 60)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11월 초 인수 인계한다.

3. 7월 29일 Seaton Golf장에서 18명이 참가하여 골프대회를 하고 한강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였다.



<17면 관계사진>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상을 졸업 40주년을 맞은 15동기회 金勇一(61년졸·가천의대 총장)·洪昌基(61년졸·서울중앙병원장)·李惠媛(61년졸·전필라델피아 지부 동창회장) 동문들이 수상.

의과대학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상 수여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0월 17일 모교 연건 캠퍼스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회 동창의 날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에 졸업 40주년을 맞은 15동기회 金勇一(61년졸·가천의대 총장)·洪昌基(61년졸·서울중앙병원장)·李惠媛(61년졸·전필라델피아 지부 동창회장) 동문이

선정돼 모교와 동창회로부터 기념패를 받았다. 이어 15동기회 沈英輔회장이 李種郁회장 및 李회장에

게 모교 및 동창회 발전 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졸업 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위해 기념 만찬회와 골프대회를 준비했으며, 국내외에서 참석한 1백여명의 동문들은 3박 4일에 걸쳐 오대산 및 동해안 일대를 관광했다. <서울동창회보 전제>

NY지구 소식

뉴욕지구 동창회 送年會

180여명 참석 동문들간의 우애를 다짐

뉴욕지구 총동창회(회장 한창섭)의 2001년 送年 Party가 12월 22일 저녁 6시 반부터 대원각(Cliffside Park, NJ)에서 열려 9.11참사를 잊고 동문들이 우애를 나누는 즐거운 송년의 밤이 되었다. 182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하여 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자리에는 재미총동창회의 이용락 회장 내외, 조원일 뉴욕총영사(법대 68년 졸), UN 대표부의 반기문(문리대 70년 졸)대사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다.

한시간 동안의 카테일에 이어, 김종을 차기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 총회는 한창섭 회장의 인사말, 재미총동창회의 이용락 회장의 축사, 최철용 22대 전 회장과 한영우 전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韓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서울대출신이라는 사실이 배우자를 맞은 일부터 우리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동창회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이러한 고마움에 보답하자”고 역설하고 “동창회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동문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재미총동창회의 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역 동창회, 특히 뉴욕과 남가주 동창회의 협조와 후원이 재미총동창회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 순서로 99년에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Man

attan School of Music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정민 동문의 독창회가 시작되었다. 제 2의 조수미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소프라노 李동문은 라보엠의 아리아, 청산에 살으리랴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7곡을 청순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러 청중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이어서 2부 순서에 앞서 60세 이상의 골프애호동문들로 조직된 골든 클럽 (회장 정택수)이 12월과 1, 2월에 생일 맞은 회원들에게 생일선물로 골프 공 한 박스씩 최수용 회원 등 7명에게 선사하였다. 2부 순서로 들어간 이날 파티는 하모니카연주의 세계적인 대가로 알려진 이진구전회장이 특별 출연하여 하모니카 연주와 기성가수를 능가할 만한 재능으로 노래를 불러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뉴욕-서울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 표는 Door Prize로 사용하여 추첨한 결과 의과대학출신인 정인용(의대 71년 졸)동문이 탔는데, 그는 뉴욕동창회에 1,000 달러를 기증하였다.

이날 파티는 클래식음악과 하모니카연주, 노래와 춤으로 밤 11시 반까지 계속된 모든 참석자들이 흥겹게 즐기 보람있는 모임이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뉴욕동창회 이름이 들어있는 머그를 선사하였는데 이것은 추재옥(의대) 이사장이 기증한 것이다.



- ①한창섭 회장의 인사말
- ②이정민 동문의 독창회
- ③참석 동문 가족들의 무도회
- ④사진 뒷줄 좌에서부터 조원일(NY총영사)동문,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 반기문(UN차석 대사)동문, 한창섭(NY회장), 김종을(차기회장)동문, 앞줄에는 사모님들이 함께 기념촬영.

사진을 보내실때는 사진 속에서 모든 분들의 이름을 꼭 밝히셔야 영원히 살아 있는 사진이 됩니다.

유희길 동문 別世

뉴욕지역에서 수많은 암환자들을 진료하여 왔으며 자신이 뜻하지 않은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던 유희길 동문(공대 68년 졸, 공학박사 및 MD)이 뉴욕지역의 교민들과 동문들의 헌혈 및 구명노력에도 불구하고 20일 안타깝게 別世하였다.

서울대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c.kr>

시카고지역 소식

이 기억 선배님의 8순 生身宴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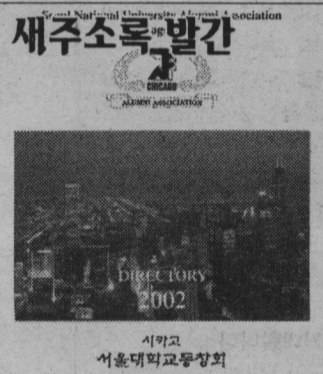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창립위원으로 제 2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미 중서부지역 동창회 초대 회장을 지내신 **이 기억 박사님**(문리대 47년 졸)의 팔순을 축하드리는 만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시카고 지역 동창회



일시 : 2002년 1월 11일(금) 오후 6:30
장소 : Oak Brook Hills Hotel
3500 Midwest Road, Oak Brook, IL 60523
만찬비 : 1인 \$30.00
연락처 : 송순영 (312) 648-3563 (O), 최길용 (630) 289-5349 (H)
정 호 (630) 961-1321, 최희수 (773) 960-5766
* 참가 여부를 1월 5일 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동창회



▲새 주소록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한 재은 차기 회장이나 장영수 총무나 배중면 동문 (630-922-727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지역 동창회날(2001년 11월 28일) 조대현 회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는 19대 회장 김정주 동문. 사진 왼내는 시카고 동창회의 새해의 기수가 될 차기회장 한재은 동문이 이를 보고 있다.

시카고지역 사대 동문회

시카고지역 사대 동문회 (회장 지명식 사대 72졸)는 지난 11월 16일(금) 저녁 7시에 Niles에 소재한 세노야 Restaurant에서 동문회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문병훈(51 졸), 육길원(63 졸), 이승자(64 졸), 강대철(68 입) 동문이 부부동반 참석하고, 최호승(63 졸), 김원엽(63 졸), 이재현(67 졸), 김봉주(72 입), 홍혜례(72 입) 동문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학창시절의 추억 담과 미국 정착 당시의 애환을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카고지역 사대 및 총동창회뿐만 아니라 전 재미 총동창회의 원로이신 문병훈 선배님의 6.25 당시 추억담과 부인께서 미국에서 첫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여 무엇이던 고국에서 온 것을 먹으면 될 것 같아, 유학생들이 궁리 끝에 "쌀 시리얼"을 한국에서 온 소포 포장지로 위장 포장해서 고

국에서 온 것이라 하여 먹었던 이야기와 고국에서 보내온 고약한 냄새가 나는 굴비를 먼 산으로 나가 구워와서는 대가리 뼈 남김없이 먹었던 이야기는 요즘 한국식 품가게에 가면 없는 것 없이 다 사 먹을 수 있는 오늘날과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였다. 또 김원엽 선배께서는 재학시절엔 전혀 뜻이 없었던 교직이 막상 교단에 서고 보니 천직이었고, 그 12년 교사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회고하며 지금도 그 시절의 꿈을 꾸고 스승의 날이면 40대 후반의 여자 제자들이 국제전화를 해온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재현 동문의 중국 선교여행담, 25년 간 부부교사로 재직하다 3년 전에 이민 와서 처음 동문회에 참석한 강대철 동문 부부 이야기 등등 밤을 세워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정담으로 시종 화가에에한 분위기였다.

□육길원 동문은 올해 초 출판한 칼럼집 "한민족은 어디에 사나 한민족"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저자 서명을 하여 나누어 주었고, 최호승 동문은 이날의 모든 비용을 참석 동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담하셨다.

이승자 동문 부부는 업무상 꼭 참석해야 했던 저녁일정이 있었는데도 꼭 참석하시느라 이날은 저녁은 2번이나 드셔야 했고 주시카고 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근무하는 김봉주 동문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 김신웅, 지명식, 동문 그리고 부인의 사모제(思慕祭) 미사로 참석치 못한 차광순 동문 등은 동문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해주길 거듭 당부하였다. 11월 24일 있는 시카고지역 총동창회 연말모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카메라를 준비하지 못해 정다운 모습들을 담아두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투고자: 총무 홍혜례)

2001년도 시카고 지역동창회 행사 요약

- ◇2월 11일 - 1차 임원회. 조대현 회장대. 임원간 상견례. 업무 인수 인계. Newsletter 1호 발간 토의.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미주 총동창회 협조 관계. 신입이사 선출 토의
- ◇3월 18일 - 2차 임원회. 박숙 부회장대. 행사 일정 확정. 예산안 확정. Newsletter #1. 신입이사 후보 선출.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 회 및 춘계 Golf Outing.
- ◇4월 7일 - 1차 이사회. Radisson Hote. 총 70여명 (부부 포함) 참석. 2001년 - 2003년도 신입 이사 인준. 2001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 인준. 장학기금 관리위원 인준. 장학생 선발위원 선출 및 장학금 인준.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선출.
- ◇5월 13일 - 3차 임원회. 전현일 재무대. Newsletter #2, 춘계 Golf Outing 준비, 재미 총동창회 평위원회의 (6월 9일) 관계, Picnic 계획 등 토의.
- ◇6월 10일 - 춘계 골프 대회. Willow Crest Golf Club에서 재미 총동창회 평위원회의에 참석한 내빈을 포함 50여명이 참가 성대히 거행되었음.
- ◇6월 23일 - 여름 야유회. Busse South Preserve Grove #12. 동문, 가족, 친지 및 guest등 100여명 참가. 동문 소개 및 푸짐한 점심식사와 운동경기.
- ◇7월 28일 - 2차 이사회. Radisson Hote. 총 58명(부부 포함) 참석. 전반기 행사 보고. 차기 수석 부회장 선출위원회 구성. 장학기금 현황 보고. 장학생 선발 요강. 후반기 행사 계획. 재미 총동창회 관계 보고.
- ◇9월 9일 - 4차 임원회. 조순분 간사대. 2차 이사회 보고. Newsletter #3 발간과 추계 Golf 대회건 토의. 기타 안건으로 장학생 선발 관계보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 3차 이사회 준비 (장소), 동창회 명부 발간. 연말 총회 및 party 토의.
- ◇9월 22일 - 추계 골프대회. Willow Crest Golf Club. 26명 참가. 폭우 관계로 대회 중단.
- ◇9월 26일 - 9월 11일 뉴욕참사 희생자를 위한 성금(\$500)을 시카고 한인회를 통해 전달(조대현 회장 / 장기남 간사)
- ◇10월 2일 - 시카고 한인 노인 복지 센터를 방문, 추석 성금 (\$500)을 전달 (조대현 회장 / 장기남 간사).
- ◇10월 13일 - 3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Hotel and Resort. 총 59명 (부부 포함) 참석. 차 차기 회장 (2003년도) 선출 / 인준. 차기 회장단 및 감사(2002년도) 선출 / 인준. 장학생 선발 중간 보고. 주소록 발간 진행 보고. 기타 행사 보고.
- ◇11월 4일 - 5차 임원회. 장기남 간사대. 연말 총회 준비 (11월 24일 Radisson Hotel). 2002년도 주소록 발간. 제 3차 이사회 보고.
- ◇11월 24일 - 2001년도 총회 및 연말 파티. Radisson Hotel. 장학금 수여. 새 주소록 배부.

기록 : 장영수 총무

시카고 동문여러분,
그간 동창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1년 11월 24일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장 : 조대현,
차기 회장 : 한재은
총무 : 장영수, 재무 : 전현일
편집간사 : 배중면, 홍보간사 : 장기남, Web Master : 유희두
특별간사 : 김호범, 양홍미, 최순분, 한의일
학생대표 : 전현영, 원종인, 이대기
고문 : 문병훈, 최일주, 박영규, 박창만, 구경희, 김정주
감사 : 송순영, 김현욱

모교소식

개교 제55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卞柱仙·安哲秀동문

李총장 “대학 재정·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보돼야”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 유명무명의 많은 대학이 있지만 전하의 존재들이 모여드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우리들의 모교」라고 말하고 「조국 앞에, 세계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이 큰 덕성을 보이면 은하수가 되어 찬란한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기념사

모교 개교 제55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6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權彝赫전임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基俊총장은 기념사에서 「모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등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입학전형제도와 학사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며, 대학원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세계의 명문대학 및 우수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학생선발, 학사운영 및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및 축사 요지 참조)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대 사회학과 權泰煥교수 등 20명이 30년 근속 표창, 재무과 姜大一행정주사 등 1백8명이 20년 근속 표창, 관리과 魯根勳행정주사 등 55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卞柱仙의장, 안철수연구소 安哲秀대표이사를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방안 중의 하나인 대학운영체제와 운영방식 개선분야에 대한 조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독립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 대학 시스템의 벤치마킹, 그리고 학사제도 및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이번 최고 자문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공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교직원·학생 1백여 명이 참석해 해외 최고자문위원들에게 학교의 자율성, 입시제도, 학사과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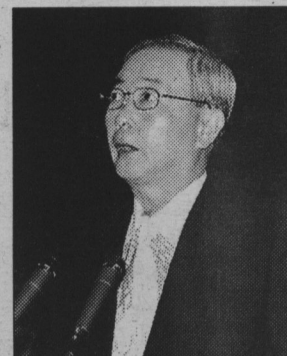
하스미 시게히코 前도쿄대 총장은 「패널들이 가진 영·미식 사고는 한국의 풍토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의견 조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모교 차 冼錫기회실장은 본부 발전기획팀이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자문단이 내놓을 대안을 참고하여 내년 초 학교 발전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 우수 석학들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단이 모교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變)

李基俊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SCI 논문계재 건수가 1997년에는 세계 1백26위였지만 2000년에는 세계 55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세계화, 한국학, 남북관계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05년까지 세계 40위권에 드는 종합연구대학이 되고, 2010년까지 우리 대학의 약 50개 학문분야 중에서 적어도 30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 혹은 우리만의 고유한 업적을 창출하여 선도하도록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특히 교수임용, 신입생 선발, 학사 교육,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국내외 교류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문적 수월성을 견인해낼 우수교수를 유치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용심사 기준의 강화, 외국인 및 타교 출신 교수 임용의 확대, 교수의 개인별 연간 업적에 기초한 특별연구비 지원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원 증원과 첨단기술 분야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성별, 국적, 출신교 등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연구경쟁력을 갖춘 교수를 증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 디지털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잠재력을 갖춘 신입생을 선발하고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입학전형제도와 학사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전형제도에 있어서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고, 전형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사과정 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연구와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 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교 출신자의 대학원 선발비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전공분야에서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세계의 명문대학 및 우수한 연구기관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점 상호인정,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함께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계화된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를 통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걸림돌들이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재정의 자율성과 학생선발, 학사운영 및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정부재정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되고,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중요 사업에 대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함께 서울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신입생 선발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많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학으로 이양하여 자율성 제고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의 입학정원, 신입생 선발방식, 교직원 인사 등의 여러 부문에서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은 직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적절한 복직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해외 최고자문단 회의 개최

모교 발전위한 조언·의견 제시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문단 환영 만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모교는 최근 해외 유수의 전·현직 대학 총장 및 학장들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단(Blue Ribbon Panel)을 서울로 초청, 모교의 대학운영체제와 운영방식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받았다.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자문단은 모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반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가진 뒤 오는 12월에 확정 발표될 서울대학교

발전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제시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의장을 맡은 헨리 로즈스키(前하버드대 문리대 학장)를 비롯해 마이클 코얀(캘리포니아대 학술원 회장), 하스미 시게히코(前도쿄대 총장), 단 제이콥스(前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장), 로드 옥스버러(前임페리얼 칼리지 총장), 휴고 소넨샤인(前시카고대 총장) 등 각국의 명망있는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자문단의 핵심과제는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동 정

수 상

▲金敏洙(51년 文理大卒·고려대 명예교수)=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회상(문화부문)을 수상함.

▲權寧禹(51년 藝術大卒·한국화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趙完圭(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지난 10월 8일 일맥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일맥문화대상(교육봉사상)을 수상함.

▲全相運(56년 文理大卒·문화재위원회 위원)=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회상(학술부문)을 수상함.

▲崔一男(57년 文理大卒·소설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金義卿(60년 文理大卒·극작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제3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연극무용부문)을 수상함.

▲李成茂(60년 文理大卒·국사편찬위원장)=지난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청권사가 수여하는 제4회 효령대상(문화부문)을 수상함.

▲金京熙(61년 文理大卒·지식산업사 사장)=지난 10월 26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간행물윤리상 대상을 수상함.

▲韓基昊(61년 文理大卒·운송신문 발행인)=지난 10월 2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禹完植(61년 商大卒·한국종합에너지 부회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제조업부문)을 수상함.

▲金宗學(62년 美大卒·前강원대 교수)=지난 11월 5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가 수여하는 제2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함.

▲洪元卓(62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수여하는 제2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함.

▲李源洋(63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지난 10월 16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한·독 학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독일연방공화국 1등 십자공로훈장을 받음.

▲林繁藏(64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지난 10월 15일 문화관광부 5층 회의실에서 제39회 대한민국 체육상(연구

부문)을 수상함.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 회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금융부문)을 수상함.

▲李成千(65년 音大卒·前모교 교수)=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申應培(65년 大學院卒·한양대 교수)=지난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회 교보환경문화상 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

▲安輝濬(67년 文理大卒·모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지난 10월 26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간행물윤리상(저작부문)을 수상함. 또 韋巖 張志淵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제12회 「위암 장지연상(한국학부문)」을 받음.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의료·계약부문)을 수상함.

▲曹鍾守(70년 農大卒·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10월 12일 순천대에서 열린 제51회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자기집합된 고분자계의 구축과 의용재료에의 응용」의 업적으로 상암고분자상을 수상함.

▲金正泰(70년 商大卒·주택은행 회장)=지난 10월 21일 광주 서중·일고 총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일고인상을 수상함.

▲姜龍洙(7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촉진수송분리막연구단장)=지난 10월 18일 서울 경제신문과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55회 「이달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함.

▲黃再錫(77년 獸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

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회상(과학기술부문)을 수상함.

편집주간식

서울大 人名錄 발간에 부쳐

「회원명부」란 이름으로 서울大의 명부가 발간·배포된지도 어언 11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새로이 배출된 회원은 물론, 회원 각자의 인적사항에 많은 변동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지식정보산업시대의 핵심은 인적자본 즉 Human Capital이며, 또 이의 개발전략은 Networking에 있다고 볼 때, 서울大 출신의 Human Resource를 확인·정리하고 Sorting하는 일만해도 모교는 물론, 나라의 경쟁력 제고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인명록 편집실을 개설·운영하면서 모교와 협력하여 Raw Data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또 T.M.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집된 인적정보는 인명록 발간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할 것임을 점언합니다.

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회상(과학기술부문)을 수상함.

▲朱南哲(77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육관문화훈장을 받음.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지난 10월 20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한국생산성학회가 주관한 제8회

생산성 경영자대상을 수상함.

▲徐判吉(80년 獸醫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0월 25일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2001년 학술대상 「동헌상」을 수상함.

▲文愛理(83년 藥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9월 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동성제약(주)이 국내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약업인에게 수여하는 「李善珪 약학상」을 수상함.

▲李在榮(86년 人文大卒·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오는 11월 3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창작과비평사가 수여하는 제8회 참비 신인평론상을 수상한다.

▲金範(86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10월 29일 갤러리현대에서 프랑스의 패션기업인 에르메스가 주관한 제2회 「에르메스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함.

▲孫錫鍊(00년 音大卒·성악가)=지난 9월 22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7회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27개국 참가자들과 경합을 벌여 1위와 특별상을 수상함. 법원행정처 孫基植(72년 法大卒)사법정책연구실장이 부친임.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장)=지난 10월 15일 중앙일보 구사육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에 특별부문 대상을 수상함.

▲柳寅鶴(38기 AMP·한국조폐공사 사장)=지난 10월 6일 소충·사선문화재단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0회 昭忠·四仙文化賞(특별상)을 수상함.

▲元大淵(44기 AMP·제일모직패션부문 사장)=지난 10월 23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디자인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디자인 경영자상을 받음.

이동·선임

▲徐廷旭(57년 工大卒·前과학기술부 장관)=지난 10월 16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 임시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26일 기업정보화 관련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李洪九(53년 法大入·前국무총리)=지난 10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에 위촉됨.

▲金允植(59년 師大卒·前모교 교수)=지난 9월 28일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비평 분야를 강의함.

▲李英浩(60년 師大卒·명지대 객원교수)=지난 10월 24일 해병대학교 총동창회 발기인 대표에 선임됨.

「에반젤 코러스」 任昌培단장 전국합창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지난 9월 22일 대전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대통령배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任昌培(80년 音大卒·여주대 겸임교수)동문(사진)이 지휘한 에반젤 코러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任동문은 한국음악협회 이천시 지부장, 에반젤 코러스(서울대표)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두부사(창작곡), 상투스(미사곡) 등 2곡을 연주해 상금 1천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任동문은 두 달전 제주도에 열린 탐라 전국합창대회에 이전콘서트라이더 회원들과

함께 참가, 대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해 任동문은 오는 11월 1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 대음악회에 출연, 뉴서울필오케스트라와 전국각지에서 모인 2002명의 합창단을 지휘하게 된다.



▲崔圭完(61년 醫大卒·삼성의료원장)=지난 10월 21일 열린 대한내과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신입 회장에 선임됨.

▲金京愛(61년 齒大卒·김경애치과의원장)=지난 10월 23일 열린 부산여자고등학교 재경동창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장에 선출됨.

▲黃光雄(63년 工大卒·건화엔지니어링 회장)=최근 열린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이사회에서 이사 겸 한국지회장에 선출됨.

▲金道彦(63년 法大卒·前검찰총장)=지난 10월 9일 법무법인 청률 고문 변호사에 위촉됨.

▲崔信錫(63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0월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學泉(63년 師大卒·건국대학교수)=지난 10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선임됨.

▲韓昇洙(63년 行大院卒·외교통상부 장관·行大院同窓會長)=지난 9월 12일 국내 처음으로 제56차 유엔총회 의장에 선출됨.

▲許勝一(64년 文理大卒·모교역사교육과 교수)=최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耕宇(64년 法大卒·前평화은행장)=최근 전자경비시스템 분야 벤처기업인 시큐어넷 상임 고문에 선임됨.

▲金恒經(64년 法大卒·駐뉴욕총영사)=지난 10월 13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됨.

▲朴俊禧(64년 法大卒·연세대학교수)=최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 제17차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18일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金德亨(66년 法大卒·前조선일보 논설위원)=최근 장간한 인터넷 신문 프레스인 편집고문에 취임함.

▲沈在淪(66년 法大卒·前대교고검장)=지난 10월 17일 부산고검장에 임명됨.

▲鄭泰基(66년 法大卒·前GT웹코리아 사장)=지난 10월 4일 교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趙源一(68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위원)=지난 10월 13일 駐뉴욕 총영사에 임명됨.

▲李相駿(69년 工大卒·인하대학교수)=지난 9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에너지경제 연구원(KEEI) 제6대 원장에 임명됨.

▲金勳東(69년 農大卒·농협경기지역본부장)=지난 10월 6일 신용보증기금 감사에 선임됨.

▲洪哲(69년 商大卒·인천대총장)=최근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물류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安京煥(70년 法大卒·모교법학부 교수)=지난 10월 13일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됨.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9월 28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환태평양협의체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賴明(70년 商大卒·기아자동차 사장)=지난 10월 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출됨.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지난 10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CEO환경경영포럼 창립모임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知文(76년 工大卒·이지에듀 대표이사)=최근 CAE(컴퓨터에 의한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한국시뮬레이션기술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됨.

▲金善鎮(81년 經營大卒·한불종합금융 감사지점장)=최근 한불종합금융 금융영업1팀장(부장)에 선임됨.

▲李哲雨(49기 AMP·합동조합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지난 10월 8일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됨.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장)=지난 10월 19일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朴聖相 前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5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柳致松(53년 商大卒·현정회 회장)=지난 10월 2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朴東鎮, 韓昇洲, 孔魯明 前의무장관 등을 연사 및 토론자로 초청,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10월 5~27일 갤러리우덕에서 「확장된 영역 속의 옷」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0월 26일 하얏트호텔 릴리움에서 환경부 金明子(66년 文理大卒)장관을 초청, 「21세기 환경위기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5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閔丙陵(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0월 11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01 전국광고주대회」를 개최함.

또 16~18일까지 일본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광고주대회에 참석, 각국의 광고관련 대표들을 만나 광고 발전방향 등을 논의함.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문학인회 고문·「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사장)=지난 10월 26일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오픈식을 가짐.

▲黃仁政(58년 文理大卒·강원발전연구원장·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장)=지난 10월 11일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협의회 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함.

▲金英淑(58년 師大卒·안양대학교수)=최근 아주대 윤여홍 교수와 함께 「특수아 상담의 이해」(교육과학사)라는 저서를 출간함.

▲沈明鎬(58년 師大卒·모교 명

제23회 예술원 미술전

동문 9명 참여...30여 작품 선배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 20명이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예술원 미술관), 또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구미시 문화예술회관)까지 제23회 예술원 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에는 李大源(45년 京城帝大卒), 白文基(50년 藝

術大卒), 李光魯(51년 工大卒), 權寧禹(51년 藝術大卒), 文學晉(52년 藝術大卒), 朴魯壽(52년 藝術大卒), 權純亨(55년 美大卒), 李信子(55년 美大卒), 閔庚甲(57년 美大卒) 동문 등이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건축 분야 작품 37점을 선보였다.

원로들의 실내악 연주

安龍基·白雲昌동문 등 출연



安龍基



白雲昌



李玉姬

최근 우리 나라 현악계의 원로들이 뭉쳐 실내악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한국음악협회 자문위원인 安龍基(57년 音大卒·비올라)·白雲昌(62년 音大卒·바이올린) 동문 등이 중견 피아니스트 李玉姬(64년 音大

卒·코리안심포니 단원) 동문과 앙상블을 이뤄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의 작품을 연주했다.

이날 공연에서 원로 연주자들은 전성기와 같은 생동감 있고 중후한 연주로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變)



李玉姬

예 교수·한국 TS엘리트학회 회장)=지난 10월 15~16일 영국문화원에서 「21세기 엘리트 문화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9월 27일 한·러 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러시아 외무부 산하 외교아카데미로부터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명예 박사학위」를 받음.

▲黃一仁(63년 工大卒·일건건축 대표·한국건축가협회장)=지난 10월 15일 조선히otel에서 존 디앤더슨 미국건축가협회장과 「한·미 건축단체간 협약식」을 가짐.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11월 1~2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방안」을 주제로 2001 협동연구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함.

▲陳哲平(63년 商大卒·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지난 11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협회 창립 31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짐.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10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자원과 국토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주제로 「물, 현안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짐.

▲盧健一(64년 文理大卒·인하대 총장)=지난 10월 11~12일 프랑스로아브르대에서 20개국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불 국제 학술대회를 가짐.

▲韓達鮮(64년 醫大卒·한림대 총장)=지난 10월 19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가짐.

▲姜光(65년 美大卒·인천대 부총장)=지난 10월 17일 인천구치소를 방문, 내부환경 조형을 위해 미술작품 276점을 기증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

행사·출간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沈明鎬(58년 師大卒·모교 명



부 장관)=지난 11월 7~9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



▲金津次(63년 音大入·서울 챔버 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0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하이트, 바하, 비발디, 보케리니,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서울 챔버 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金周喆(67년 文理大卒·iTV 경인방송 사장)=지난 10월 23~27일 중국 충칭(重慶)TV를 방문, 한·중 방송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제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0월 23~24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UN/ESCAP과 공동으로 「동북아 전력개발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와 연구협약 각서를 체결함.

▲張達重(69년 文理大卒·모교 정치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포럼 위원장)=지난 9월 27일 모교 문화관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남북한 의견대립」 통일논단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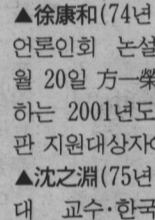
▲吳勳鎭(71년 文理大卒·前SBS 제작본부장)=지난 10월 12일 방일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인류학과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10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중국 심암 화공학원 김상욱 교수를 초청, 「中國 古代 養生長壽術」이라는 주제로 제64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徐康和(74년 新大院卒·대한 언론인회 논설위원)=지난 10월 20일 方一榮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沈之淵(75년 文理大卒·경남대 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지난 10월 1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추계 학



술대회를 가짐. ▲鄭慶源(75년 美大卒·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지난 10월 7~13일 서울 코엑스와 분당 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어울림」을 주제로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2001 SEOUL)를 개최함.



▲朴聖姬(77년 家政大卒·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10월 12일 方一榮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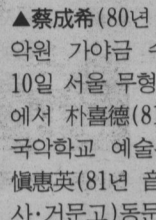
▲閔美蘭(77년 音大卒·공주교대 교수·「대전·충남 가야금 연주단 청·홍」대표)=지난 10월 23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7회 대전·충남 가야금 연주단 청·홍의 밤 행사를 개최함.



▲孫泰元(77년 行大院卒·한양대 교수·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지난 10월 13일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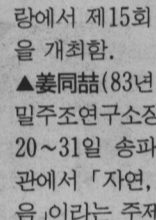
도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5회 창업기업인상 시상식」을 가짐.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라대 부대변인 겸 서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지난 10월 23일 울산대에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주제로 특강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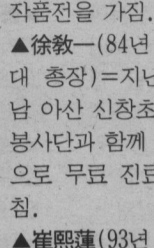
▲蔡成希(80년 音大卒·국립국악원 가야금 수석)=지난 9월 10일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차喜德(81년 音大卒·국립국악학교 예술부장·대금)·동문, 慎惠英(81년 音大卒·전남대 강사·거문고)·동문 등과 함께 「3인3색 음악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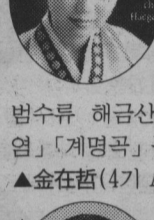
▲申璋湜(82년 美大卒·국민대 교수)=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명상 -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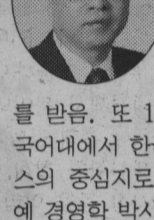
▲元仁鍾(82년 美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관훈동 선화랑에서 제15회 선미술상 수상전을 개최함. ▲姜同喆(83년 美大卒·왕립정밀주조연구소장)=지난 10월 20~31일 송파문화원 1층 전시관에서 「자연, 사람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청동정밀주조



작품전을 가짐. ▲徐教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10월 13일 충남 아산 신창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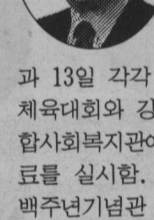
▲崔熙蓮(93년 音大卒·부산대 강사)=지난 11월 8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2회 해금독주회를 개최, 「한범수류 해금산조」 「고양이 수염」 「계명곡」 등을 선보임.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9월 27일 고려대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또 10월 25일 한국의국어대에서 한국을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든 공로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충효에실천운동본부 총재)=지난 10월 26일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충효에 대상 시상식을 가짐.



▲朴尙東(2기 EPHM·동서한방병원장·서부신문 회장·보건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장)=지난 10월 11일

과 13일 각각 건설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와 감사구 등촌7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함. 또 25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제12회 가곡의 밤 행사를 개최함. (정리=安興燮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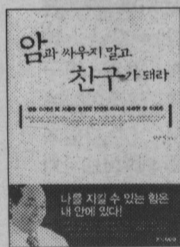
<13면서 계속> **적극적인 투자·제도적 뒷받침 요구**

국립 암센터의 개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암 치료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종래의 수술위주로 주도되어온 암 치료 체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항암제와 새로이 개발되는 약제들을 기존의 외과적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복합적 치료법을 연구 개발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도록 정착시킴으로써 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GNP도 1만불 대에 도달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새로운 약제들을 비싼 값으로 수입하여 쓰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소비시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지금까지 축적한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한곳으로 모아 신약 개발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때가 조만간 오리라고 믿는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연구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만이 이를 가능케 하리라고 본다.

新刊

■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 - 韓萬靑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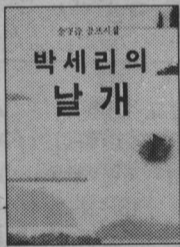


가능성 5% 미만의 확률 안에서 암이 이겨낸 韓萬靑(59년 醫大卒·前모교 병원장) 명예교수가 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다스림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암 친구론」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환자에게 찾아온 병을 가장 먼저 진단하는 방사선과 의사로서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말기암 환자로서 그 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의 면모를 지켜왔던 저자가 쓴 투병기이자 환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중앙M&B刊·값12,000원)

■ 박세리의 날개 - 金守經 著

대한병원 치과 과장인 金守



經(63년 齒大卒) 동문이 골프시집을 펴냈다. 4부로 나누어, 제1부는 박세리가 운동을 하게 된 동기와 성장과정, 프로입문, 그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배경 등을 다뤘다. 제2부는 우승했던 기억들을 정리했으며, 제3부는 박세리 주변의 세계적인 선수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등을 담았다. 제4부는 골프를 하면서 느끼는 자연과 여행에서의 고뇌 등을 기록했다. (골프헤럴드刊·값6,000원)

■ 서울문화 평양문화 통일문화 - 林采郁 著

북방문제연구소 林采郁(64년 文理大卒) 부소장이 남북한 문화비교 연구서를 출간했다.

서울문화, 평양문화는 공간적으로 휴전선 이남과 이북을, 시간적으로 광복 후 오늘날까지의 문화를 이룬 것으로 통일 한국의 문화 폭을 넓히고 통일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문화 분야를 전착해온 林采郁은 작년 6·15 선언으로 서울과 평양이 직통으로 교류함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인식에서 이 책을 썼다고. (조선일보사刊·값8,500원)

패션의 얼굴 - 정인희·함연자·정수진·김경원 譯

호주 그리피스대 제니퍼 크레이크 교수의 저서 「The Face of Fashion」을 모교 가정대 의류학과 출신 동문 4명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정인희(90년卒·금오공대 전임강사), 함연자(92년卒·부산경상대학 전임강사), 정수진(94년卒·인터패션플래닝 마켓정보팀), 김경원(96년卒·패션시장조사 프리랜서)등이 한국어로 옮긴 이 책 속에는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패션사의 이면뿐 아니라 비서

■ 패션의 얼굴 - 정인희·함연자·정수진·김경원 譯

구권의 패션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까지 옷·몸·정신·개인·문화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푸른솔刊·값18,000원)



현재 경원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全奉求(68년 音大卒) 동문(사진)이 오는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주제로 독창회를 갖는다.

公演

■ 바리톤 全奉求독창회 -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바리톤 全奉求(68년 音大卒) 동문(사진)이 오는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주제로 독창회를 갖는다.



현재 경원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全奉求(68년 音大卒) 동문(사진)이 오는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슈베르트의 가곡 「밤인사」, 「얼어버린 눈물」, 「보리수」, 「까마귀」, 「환상의 태양」, 「거리의 악사」 등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3486-9154)

정년(명예) 퇴임 교수 프로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18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명예) 퇴임을 맞이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允植교수·국문학

59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대문학 비평사와 문학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며, 후학 양성에 기여. 1백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연구의 과학적 기초를 다졌으며, 현장비평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閔丙秀교수·국문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 한문학 연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후학 양성에 기여. 한문교육연구회장, 국문학회장, 인문대학 학생담당학장보, 학생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한시학회장으로 활동.



李相沃교수·영문학

58년 文理大卒. 美뉴욕주립대학 문학박사 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재까지 영미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한국영어영문학회장, 한국비교문학회장, 모교 미국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



安乘直교수·경제학

62년 商大卒. 모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경제사 및 한국 근대경제사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 현재 한국실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李將鎬교수·심리학

62년 文理大卒. 美텍사스대학 철학박사 학위. 75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상담심리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한국심리학회장, 한국카운슬러협회장, 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



康寬斗교수·언론정보학

61년 文理大卒. 美서던일리노이 대학 언론학박사 학위. KBS와 미국 WGBH-TV 프로듀서로서 방송관련 실무를 쌓았고 한양대,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이론과 대중문화이론 등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역임.



朴炯錫교수·화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교육과 연구에 힘쓴 공로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 자연과학대학 분자과학연구소를 설립, 대학발전에 기여.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 산하 화학열역학부부의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익에 공헌.



李潤榮교수·화학

58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재까지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화학회 간사장,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 우리 나라 화학 발전에 크게 공헌.



李仁圭교수·생명과학

60년 文理大卒. 日훗카이도대학 이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 식물계통분류학 특히 조류학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개척하였으며,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식물학회장, 한국조류학회장, 한국생물과학협회장,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등을 역임.



安元榮교수·생물자원공학

59년 農大卒. 美아이다호대학 박사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임산공학의 선구자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임산공학의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임산화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목재공학회장 및 한국임산에너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



車京守교수·사회교육

59년 師大卒. 美시라큐스대학 박사학위. 7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사회교육학 강의를 통해서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청소년학회장, 한국사회교육학회장 뿐만 아니라 모교에서 대학신문사 주간, 사회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



尹世衍교수·역사교육

61년 師大卒. 美노스웨스턴대학 박사학위. 7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역사교육과 동양근현대사를 담당하여 학문발전 및 후학 양성에 기여. 문교부 정책자문위원, 역사교육연구회장, 중국현대사학회장 및 모교 교육연구소 비교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



李成千교수·국악

65년 音大卒.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82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창작 활동과 강의를 통하여 국악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 모교 음대 학장, 국립국악원장, 한국국악교육학회장, 한국음악협회 이사,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



李迎雨교수·의학

60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순환기내과학 진료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과 한국 의학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내과학회장, 대한순환기학회장, 모교 병원장 등을 역임.



李載興교수·의학

61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안과학의 끊임없는 연구와 강의·진료를 통하여 후학 양성과 한국 의학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한국망막학회장 등을 역임.



梁源植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미개척 분야인 치과교정학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한국 치과교정학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 치과병원장, 대한치과교정학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등을 역임. 현재 치대 동창회장으로 활동.



尹濤漢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치과보존학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한국 치과보존학 발전에 크게 기여. 근관치료학의 저서와 주옥같은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모교 치과병원의 보존과장,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등을 역임.



吳錫泓교수·행정학

59년 法大卒. 美피츠버그대학 박사학위. 6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행정이론 및 조직, 인사 부문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으며, 행정이론 정립과 행정학 발전에 크게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모교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명 단
01	남가주	228	<p>최해명(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의대 60입) 김종자(사범대 61입) 김수백(치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용범(치대 66입) 이법식(\$100, 공대 61입) 이승희(간호대 47입) 강배영(상대 54입) 최명룡(음대) 신우식(치대) 박진득(농대 67입) 김정애(간호대 69입) 김동훈(의대 71입) 김경희(미술대 63입) 이양구(상대 57입) 유용길(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의대 63입) 김동석(음대 64입) 전낙관(사범대 60입) 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강명식(의대 61입) 이동휘(공대 63입) 탁의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제인(약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규(공대 57입) 이재산(농대 58입) 이범모(치대 74입) 이동일(의대 68입) 이완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약대 59입) 서정빈(법대) 이정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음대 60입) 양은희(상대 56입) 이혜란(미술대 72입) 하영희(간호대 54입) 문일영(음대 66입) 김중봉(문리대 53입) 임용오(의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익(법대 57입) 김성혜(음대 71입) 이흥표(의대 60입) 윤한돈(치대 69입) 김진호(의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정지선(상대 58입) 김영기(의대 54입) 추교훈(농대 63입) 강신호(사범대 49입) 심진숙(간호대 68입) 주훈(음대) 김의창(의대 56입) 정전걸(의대 49입)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치대 54입) 최준호(치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차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채(문리대 61입) 남정우(치대 48입)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입)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섭(약대 44입) 김순덕(법대) 김지희(의대 44입) 고용규(의대 67입) 박혜란(음대 73입) 이기풍(상대 54입) 길석기(상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정협(치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심영준(수의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중표(법대 58입) 이효경(치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한경(약대 56입) 심상은(상대 54입) 정동규(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지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정진(문리대 60입) 구철희(의대 78입) 박태호(치대 66입) 김성환(의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탁(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홍(의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치대 65입) 이건설(치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치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성호(의대 72입)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묘(간호대 73입) 정기정(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영선(미대 57입) 이영송(치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치대 65입) 김설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중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치대 56입) 최승훈(상대 53입) 장대욱(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혜인(가정대 69입) 정조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함영옥(치대 56입) 김동호(치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객철(법대 64입) 김이호(상대 59입) 황동하(의대 65입) 김원탁(공대 65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균(약대 64입) 윤희기(의대 64입) 문원철(사범대 59입) 이영주(치대 62입) 박임하(치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치대 50입)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의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웅(법대 53입) 박일진(치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덕순(간호대 59입) 권순철(치대) 신동국(수의대 76입) 임선영(음대 57입) 임문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열재(법대 53입) 김성웅(농대 70입) 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의대 55입) 이수복(약대 70입) 홍주안(공대 66입) 김홍기(사범대 58입) 문태수(공대 73입) 이근섭(상대 56입) 정광진(농대 76입) 김항자(약대 61입) 최예선(치대 45입) 김재신(음대 60입) 박취서(약대 60입) 강영빈(문리대 5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광근(치대 59입) 오길평(치대 61입) 김진호(약대 64입) 정유석(의대 58입) 강환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정동석(문리대 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 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p>
03	샌프란시스코	1	김은중(상대 59입)
04	뉴욕 (NY, NJ, PA 일부)	165	<p>서병선(음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홍선경(의대 58입) 임석태(법대 46입) 김정준(의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정용(의대 67입) 송관호(의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의대 71입) 이진수(의대 63입) 김호연(의대 46입) 강영선(공대 50입) 이우찬(의대 58입) 임공세(의대 63입) 조규용(의대 66입) 김종원(사범대 62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찬명(약대 57입) 허병렬(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종진(의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호(음대 63입) 박소휘(의대 49입) 고석원(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석(공대 69입) 문길용(음대 45입) 이정은(의대 58입) 최윤희(문리대 56입) 이상근(의대 60입) 김영철(의대 55입) 임근식(음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의대 59입) 양영자(사범대 63입) 원도수(치대 68입) 김해암(의대 58입) 한용호(법대 52입) 장병호(의대 56입) 이기덕(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음대 65입) 전병삼(약대 54입) 51명 \$2,550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중음(사범대 51입) 아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선(공대 69입) 박상원(음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희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의대 72입) 노용면(의대 55입) 이충호(의대 63입) 강재현(상대 70입) 이연찬(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황문하(수의대 76입) 김충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현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자익(의대 71입) 이정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소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택(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반영철(약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사열(법대 55입) 이상길(치대 66입) 허선형(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3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규희(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익(농대 64입) 백유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봉(약대 55입) 홍준호(의대 67입) 조중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종용(약대 70입,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애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호(약대 57입) 신규호(의대 68입) 이종오(의대 58입) 변영석(의대 65입) 이병희(의대 60입) 최일담(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의대 60입) 조성부(공대 56입) 김옥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입)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석(의대 65입) 김일하(치대 58입) 민발식(의대 66입) 최희웅(문리대 64입) 신정택(약대 52입) 이준우(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창수(약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 64입) 박장생(의대 54입) 이상민(문리대 58입) 홍정표(음대 67입) 주성문(의대 58입) 이찬서(자연대 82입) 객선섭(공대 61입)</p>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22	<p>김정주(문리대 64입) 신영규(의대 57입) 주명순(간호대 64입) 설상수(문리대 56입) 정우철(의대 55입) 전영선(간호대 75입) 문병훈(사범대 46입) 하청윤(치대 81입) 양홍미(약대 67입) 서운석(의대 62입) 김원정(의대 69입) 이한중(의대 61입) 마동일(의대 57입) 김이순(공대 56입) 진순금(간호대 64입) 송용재(의대 63입) 한성수(의대 56입) 박정일(의대 61입) 황규정(의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이윤모(농대 57입) 박숙(의대 64입) 김현석(문리대 69입) 임영신(의대 52입) 임동숙(간호대) 이기희(문리대 47입) 이광선(의대 65입) 이종일(의대 71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지명식(사대 65입) 박준철(공대 66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원호(의대 59입) 윤석한(치대 62입) 한의일(공대 62입) 한동하(의대 58입) 이상일(의대 34입) 김윤태(의대 63입) 윤봉수(간호대 73입) 황현상(의대 55입) 권순희(간호대 78입) 김동수(공대 48입) 계명수(의대 69입) 장홍(문리대 61입) 이백기(의대 58입) 김형수(농대 68입) 김태기(의대 69입) 안창현(의대 55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진보린(약대 56입) 이진정(공대 73입) 김용우(공대 58입) 이수인(의대 56입) 장시경(의대 58입) 정영숙(사범대 63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장세균(의대 57입) 허서룡(의대 60입) 김건(문리대 63입) 한재은(의대 59입) 김봉현(법대 51입) 이민우(의대 67입) 원종수(의대 69입) 배영섭(의대 34입) 이명자(간호대 60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기춘(약대 42입) 정길화(의대 65입) 김창구(의대 65입) 장재찬(의대 59입) 이태안(의대 67입) 최혜숙(의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규달(의대 68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위장호(의대 67입) 한성학(의대 57입) 박봉수(공대 59입) 표양순(간호대 71입) 장병호(의대 66입) 조철영(의대 75입) 김인수(상대 60입) 이인선(미대 70입) 최운소(공대 60입) 임현재(의대 59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소진문(치대 58입) 유태원(교육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고병철(법대 55입) 정승규(공대 60입) 장윤일(공대 60입) 강창란(의대 58입) 구경희(의대 59입) 계훈택(의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배건재(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 62입) 이철주(치대 77입) 전영자(미대 58입) 남상용(공대 52입) 고영철(의대 45입) 이영웅(의대 62입) 김택수(의대 63입) 조현원(의대 54입) 박창훈(공대 66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이병석(의대 57입) 임재일(농대 64입) 이정일(농대 5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 57입) 서상현(\$100, 의대 71입) 조중행(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입) 최동규(법대 79입) 이윤리(공대 48입) 이승자(사범대 60입) 임이섭(\$100, 미술대 54입) 손기용(의대 68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6	워싱턴 DC (MD, VA)	61 조군실(사범대 40입) 조병선(의대 71졸) 마계일(치대) 한해경(간호대 43입) 심준보(상대 55입) 문성길(의대 63입) 이정균(미술대 77입) 이항열(법대 57입) 주일(의대 46입) 문세화(법대 57입) 엄승용(농대 57입) 오기창(법대 50입) 김석호(공대 78입) 고무환(법대 57입) 김창호(법대 56입) 이정섭(의대 48입) 박명영(의대 66입) 조남현(의대 64입) 김충규(의대 60입) 이신규(\$100, 공대 63졸) 김창웅(법대 60입) 김진홍(의대 68졸)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이내원(사범대 58입) 박형순(의대 60졸) 김국(농대 75입) 곽태조(음대 64입) 박영호(공대 64입)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입) 신상균(의대 52입) 조인욱(간호대 71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장효강(공대 66입) 김수웅(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입) 강준희(의대 71입) 윤계일(약대 60입) 김재구(의대 56입) 전경철(공대 55입) 소속영(간호대 64입) 이홍석(공대 49입) 변민식(사범대 49입) 정재성(의대 68졸) 임필순(의대 54입) 김기환(공대 67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신영철(의대 53입) 진금섭(약대 57입) 김효성(공대 51입) 이형모(의대 45입) 유영준(의대 68입) 정두현, 석근범(문리대 61입) 박인영(의대 69입) 정약훈(의대 49입) 이정의(의대 59입) 오광동(공대 52입) 맹옥열(간호대 68입)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16 이대원(사범대 58입) 송세창(상대 53입) 전계상(공대 40입) 김재호(상대 54입) 유성렬(공대 72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이순모(공대 56입) 이동립(의대 5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김영일(공대 53입) 양용관(수의대 62입) 채태용(법대 55입) 윤재명(의대 65입)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TX)	12 이찬주(공대 63입) 김영창(공대 64입) 박진수(의대 58입) 이은설(문리대 53입) 현인설(공대 57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최관일(공대 54입) 이진현(의대 67입) 이규진(약대 60입) 함호자(음대 62입) 박승균(의대 59입) 김태훈(공대 57입)
09	달라스 (DOLLAS, TX)	5 신철영 강성호(수의대 81입) 전중희(공대 56입) 김인호(공대 47입) 임성빈(사범대 56입)
10	미네소타 (MN)	12 남세현(공대 67입) 박상빈(공대 71입) 남세현(공대 67입) 김태환(의대 58입) 최정음(공대 58입) 신학철(공대 75입) 김권식(공대 61입) 문일지(공대 61입) 조형준(문리대 62입)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 62입)
11	조지아 (GA)	16 이철남(의대 50졸) 사성주(\$100, 사범대 70입) 윤민자(음대 65입) 주종광(약대 60입) 유우영(의대 68졸) 장병건(대학원 64입) 김만복(문리대 72입) 한영수(의대 54입) 이관호(공대 45입)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박천기(법대 56입) 아준남(의대 59입) 계광무(공대 63입) 오경호(농대 60입)
12	아리조나 (AZ)	4 최상호(공대 53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진명규(공대 70입)
13	유타 (UT)	2 김성완(문리대 59입) 손홍용(공대 58입)
14	하와이 (HI)	8 유재호(\$100, 문리대 59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오갑열(행정대학원 75입) 박성재(상대 49입) 남궁종(공대 52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창원(공대 49입) 김용진(공대 50입)
15	오레곤* (OR)	8 김선호(사범대 59입) 박창성(사범대 72입) 박희진(문리대 57입) 김상순(상대 67입) 김상만(음대 46입) 성성모(사범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서부)	5 서만길(의대 63입) 이학은(약대 57입) 홍지호(공대 53입) 박용호(의대 59입) 김현철(의대 57입)
17	기타 (중부)	2 이회백(의대 55입) 유태준(의대 59입)
18	기타 (동부 & 캐나다)	8 정양수(의대 60입) 정구영(의대 50입) 박종선(공대 60입) 오인석(법대 59입)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입) 조동림(의대 56입)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24 염극용(의대 60입) 윤정나(음대 57입) 정덕준(상대 63입) 정학량(약대 56입) 서중민(공대 64입) 김현영(수의대 58입) 남신우(공대 61입) 김용국(의대 58입) 임광상(공대 57입) 심완섭(의대 73입)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입) 주기복(수의대 68입) 안지영(문리대 71입) 구정울(의대 55입) 오진석(치대 56입) 김영우(공대 55입) 신성식(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서진석(의대 62입) 최환(공대 68입) 양운택(의대 58입, \$100) 이기범(의대 56입) 전방남(상대 73입)
20	뉴잉글랜드 (MA)	21 김재호(상대 56입) 김호영(약대 52입) 김교안(의대 59입) 박현자(음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강길원(의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윤상대(수의대 62입) 박병준(공대 52입)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입) 김문소(농대 61입) 변화경(음대 66입) 문대욱(의대 73입) 문형성(의대 65입)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입) 김경서, 배성호(의대 65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14 박옥동(상대 56입) 곽노환(문리대 52입) 신두식(의대 58입) 오태요(의대 56입) 오계숙(미대 59입) 임하진(의대 79입) 민경환(의대 56입) 유준혜(의대 70입) 박세화(의대 76입) 이상강(의대 70입) 김경숙(가정대 70입) 설원종(의대 60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이상문(상대 57입)
22	펜실바니아	4 이목인(공대 75입) 홍수웅(의대 59입) 심기련(상대 57입) 심재철(공대 78입)
특별기부금		2 (고) 전시룡 동문의 미망인 \$ 50, Mrs. 안광현 \$ 82
계		740 \$37,582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전희택(3,000) 이청광(1,500) 김동석(200) 박성민(200) 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민연(300) 이병준(3,000) 정인환(200) 오길평(200)	10	9,0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방준재(250) 이준행(500) 이기영(200) 김상각(500) 이기형(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한창섭(200) 이운순(200) 조대영(200) 최영태(200) 김용학(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16	3,85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김정주(200) 김호범(200) 송재현(200) 문병훈(200) 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정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이용락(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수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욱(200) 신상균(200) 장효강(200)	31	19,900
06	워싱턴 DC (MD, VA)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유수(1,000)	6	2,600
07	워싱턴주			
08	휴스턴	탁순덕(250)	1	250
09	달라스	김옥균(200)	1	200
10	미네소타	김태환(500) 이창재(200)	2	700
11	조지아	김용건(200)	1	200
12	아리조나	오덕겸(300) 박성숙(300)	2	200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조충훈(200)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정구영(200)	1	200
19	필라델피아	김현영(200)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4	800
20	뉴잉글랜드	김인수(200) 윤상래(200) 변화경(300)	3	700
21	하트랜드	류광현(200)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4	1,100
22	중부펜실바니아			
일반 이사 합계			83	\$40,300
종신 이사 합계				
총 계			83명	\$40,3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11월25일~12월20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이청광
정 태, 전희택

300달러이상

전희택(의대 60입) \$3,000
이청광(상대 61입) \$1,500
이준행(공대 47입) \$ 500
오덕겸(의대 58입) \$ 300
박성숙(간호대 59입) \$ 300

300달러이하

방준재(의대 63입) \$250
김동석(음대 64입) \$200
박성민(의대 60입) \$200
이기영(농대 70입) \$200
김정주(문리대 64졸) \$200
김호범(상대 73졸) \$200
송재현(의대 48입) \$200
문병훈(사범대 46입) \$200
신상균(의대 52입) \$200
김옥균(공대 54입) \$200
김현영(수익대 58입) \$200
류광현(문리대 58입)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11월25일 ~ 12월20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윤정옥 (뉴욕. 약 50입)

김영덕 (뉴욕. 공 53입)

이병준 (납가주. 상 55입)

김병수 (뉴욕. 상 55입)

최수용 (뉴욕. 상 55입)

유창남 (뉴욕. 의 58입)

오인석 (뉴욕. 법 58입)

이전구 (뉴욕. 농 60입)

임낙균 (납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워싱턴DC지역 동창회 \$ 1,875
(조수미 CD 125장 판매대금)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강영빈 (문 58입) \$250

김석식 (의 56입) \$100

박양세 (약 48입) \$1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납가주(CA)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관(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성우(100)	20	357,450
03	샌프란시스코	박우선(200) 김양주(300)	1 1	200 300
04	뉴욕 (NY,NJ,PA일부,CT)	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옥(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철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7	86,35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후(100)	15	4,700
06	워싱턴 DC(MD, VA)	지역동창회(1,875)방은호(5,000) 이규섭(150)박윤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국(50) 이선명(50)	9	8,475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4	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5	700
11	조지아(GA)	장병건(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2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강영빈(250)이회백(1,000)	2	1,25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0	4,100
20	뉴잉글랜드(MA)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4	3,4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122	491,818.33

약정하신 동문들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5,000납입) 서동영(납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납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5,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휴스턴/500)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6명 납입)	\$260,500 (\$31,0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30명	720,318.33
--------------	-------------	-------------------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악추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절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해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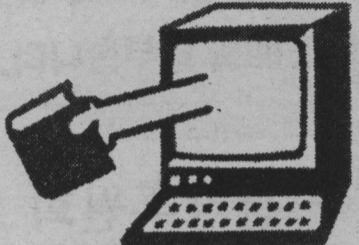
- 1) _____
- 2) _____
-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애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앞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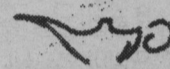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e-mail: _____
 Fax: _____

기타 의견란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철(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이창광 B:626-795-7988 H:818-888-9772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샌프란시스코	김은종 B:510-567-8800 H:925-736-551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조대현 B:630-972-4595 H:630-920-2201	장영수 B:630-252-4076 H:630-357-62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황수택 B:253-627-8680 H:253-927-8668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휴스턴	이옥배 B:281-491-8972 H:281-265-282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최근자 B:214-665-8345 H:972-403-1269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박창성 B:503-692-6747 H:503-579-8492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이 욱 B:814-862-0494
중부펜실바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온타리오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최승선 B:604-584-5067
캐나다/밴쿠버	엄승용 B:604-542-0595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p>강 권</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익사업</p> <p>IBCONS INT L 김제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교 회</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 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융/용지</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p> <p>의협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욱(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변호사</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 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 원 수의과(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 원 신경외과</p> <p>Rim and Sul, MDPC 임춘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p> <p>병 원 신경정신과</p> <p>Kenneth Song 송광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 원 위장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 원 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보 석</p> <p>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보 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회양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업무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설 계</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농 67입) (310)404-1848 Cerritos, CA</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故 전혁진(문 60입) 창업 (773)577 5967</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염 색</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수물류</p> <p>S.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용 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 료기구</p> <p>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 료</p> <p>Jeffrey Allen Corp. 이기명(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원(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인터넷 서점</p> <p>Aladdin USA 이형철(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자투지 부품</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전 자</p> <p>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학 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인력업</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루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학장들</p> <p>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학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술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 수표에 Payable to 'SNUAA in the USA' 그리고 '2001년 구독료' 라고 명기바랍니다.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추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